

홍성문차

계 간

봄

홍성문화원

제23권 1호 통권 154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발행일: 2004년 3월 (봄호)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 632-3613)

·인쇄처: 조양인쇄사 (☎ 041) 632-2363)



▲ 엄찬고택

신년사

— 새봄을 맞으며/홍성문화원장/2

마음의 양식

— 신간안내/편집부/45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 이모저모/편집부/5

전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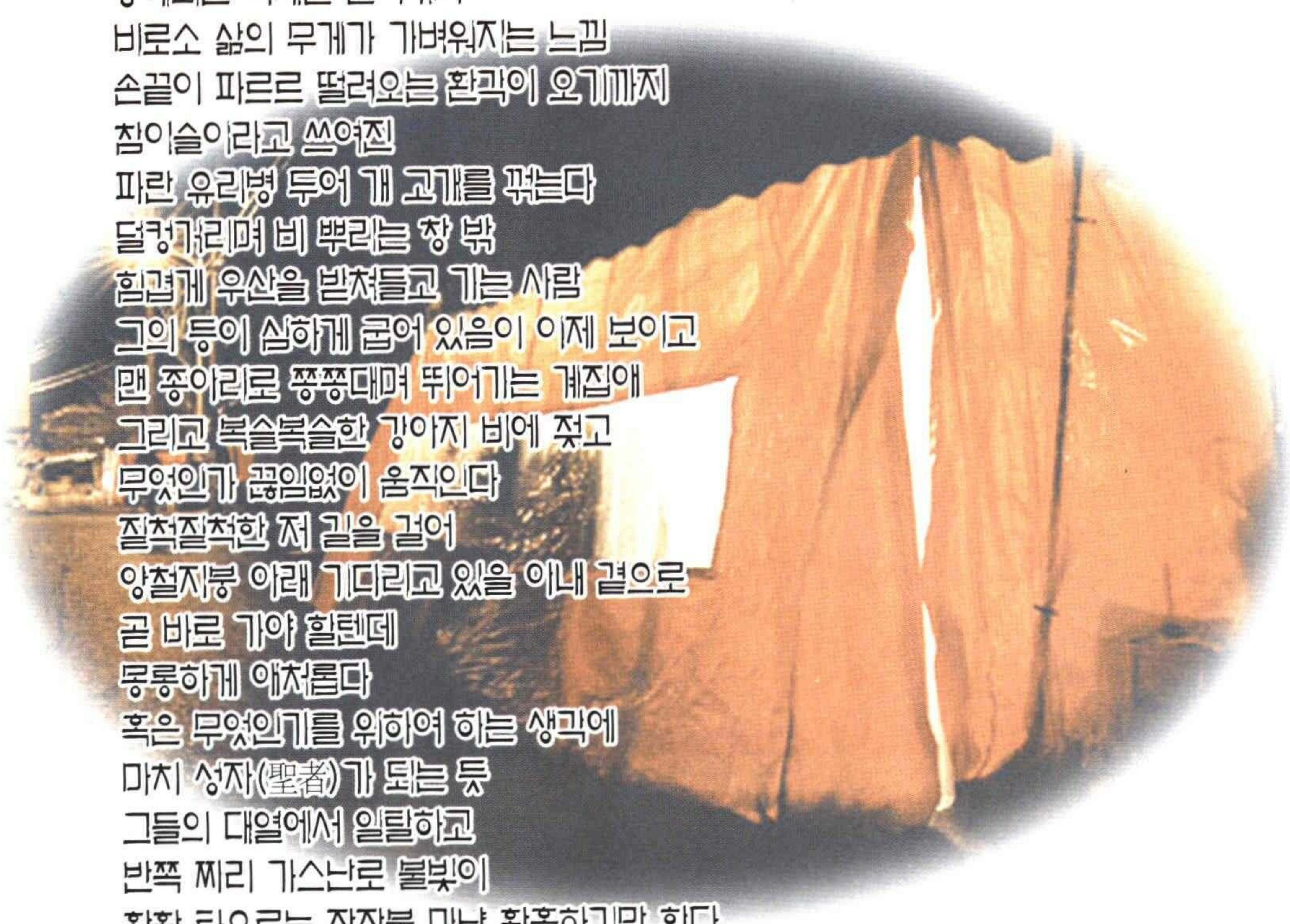
— 2004 고구려문화기획전 고구려인의 하늘·땅·사람/편집부/46

목 로 주 점



최충식 시인·보령도서관장

비가 몹시도 흠뻑리던 날
허름한 목로주점
반쪽만 벌건 가스난로 앞에 앉아
말간 소주잔에 축축한 영혼을 녹인다
한 모금 두 모금
용해되는 액체를 들이키며
비로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
손끝이 파르르 떨려오는 환곡이 오기까지
침이슬이라고 쓰여진
파란 유리병 투어 개 고개를 꺾는다
덜컹거리며 비 뿌리는 창 밖
힘겹게 우산을 받쳐들고 가는 사람
그의 등이 심하게 굽어 있음이 이제 보이고
맨 종아리로 뚱뚱대며 뛰어가는 계집애
그리고 복슬복슬한 강아지 비에 젖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질척질척한 저 길을 걸어
양철지붕 아래 기다리고 있을 아내 곁으로
곧 바로 가야 할텐데
몽롱하게 애처롭다
혹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는 생각에
마치 성자(聖者)가 되는 듯
그들의 대열에서 일탈하고
반쪽 찌리 가스난로 불빛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마냥 황홀하기만 한다



홍성문차

2004/봄

계간/팔지 않는 책

- 2 신년사 | 새 봄을 맞으며 | 홍성문화원장
- 3 우리의 다짐 | 이젠 사랑뿐이다 | 편집부
- 5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 이모저모 | 편집부
- 7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②⑩ | 거리제 | 김정현
- 홍성읍 고암리 신암동 -
- 10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이한일(李漢一) | 배동순
- 12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⑦ | 홍주읍성 | 조원찬
- 17 건강 | 질병과 사회 | 김용신
- 18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 ⑬ | 권기복
- 홍성 연극의 선구자, 이상헌 님을 찾아서 -
- 22 명산을 찾아서(6) | 팔영산(八影山) | 정태봉
- 2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 한지의 역사 ② | 편집부
- 29 담안에서 띄우는 편지 | 내 소중한 책상 | 고광철
- 3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스물 한가지 ④ | 편집부
-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어야 하는 진짜 이유 -
- 32 홍주마당
새싹 | 이유리
자작나무 숲 오솔길을 걸으며 | 김정명
2004년 새해맞이 白月山 告天祭 거행 | 전하수
보람으로 시작하는 새해 | 최규원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 | 이명순
두타산과 청옥산을 다녀와서 | 고중화
- 44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5 마음의 양식 | 신간안내 | 편집부
- 46 전시안내 | 2004 고구려문화기획전 고구려인의 하늘·땅·사람 | 편집부
- 47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 48 편집후기 | 표지사진 작가소개 | 편집부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4년 3월
통권 154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041-634-9659
인쇄처·조양인쇄사

계	사무국장	부국장	원
김	정	정	정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정수영

2004. 4. 26

새 봄을 맞으며



이 하 영
(홍성문화원장)

갑신년의 새봄은 재주가 많다는 잔나비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생활의 양금을 털어 내고 따스한 봄기운에 모두 녹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버들강아지 눈을 뜨듯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솟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생활 속에 웃음을 피우며,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디찬 얼음 속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려온 대지의 새싹들이 일제히 솟아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순리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슬기롭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으며,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새로운 원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건물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창달을 위해서 저희 문화원 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홍성문화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젠 사랑뿐이다

지금부터 45억년전 지구가 탄생되었고, 300만 년전에 인간이 태어나 현대의 호모사피-사피엔스탄생을 3만년전으로 보고 있으며, 5천년 전부터 역사시대로 보는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부터 1세기 전만 해도 인간이 인간을 그리워해서 지나는 길손이 하룻밤 유해 간다고 하면 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정성껏 대접해 보내던 시대였다.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와 물질문명의 엄청난 변화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변화가 인간의 삶의 방식도 당연히 그에 따라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던 삶의 방식에서 물질문명의 급변으로 오늘날 사회생활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변화의 소용돌이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열심히 전파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가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라져 가고 중상 모략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살인, 강도 사건으로 신음하는 한맺힌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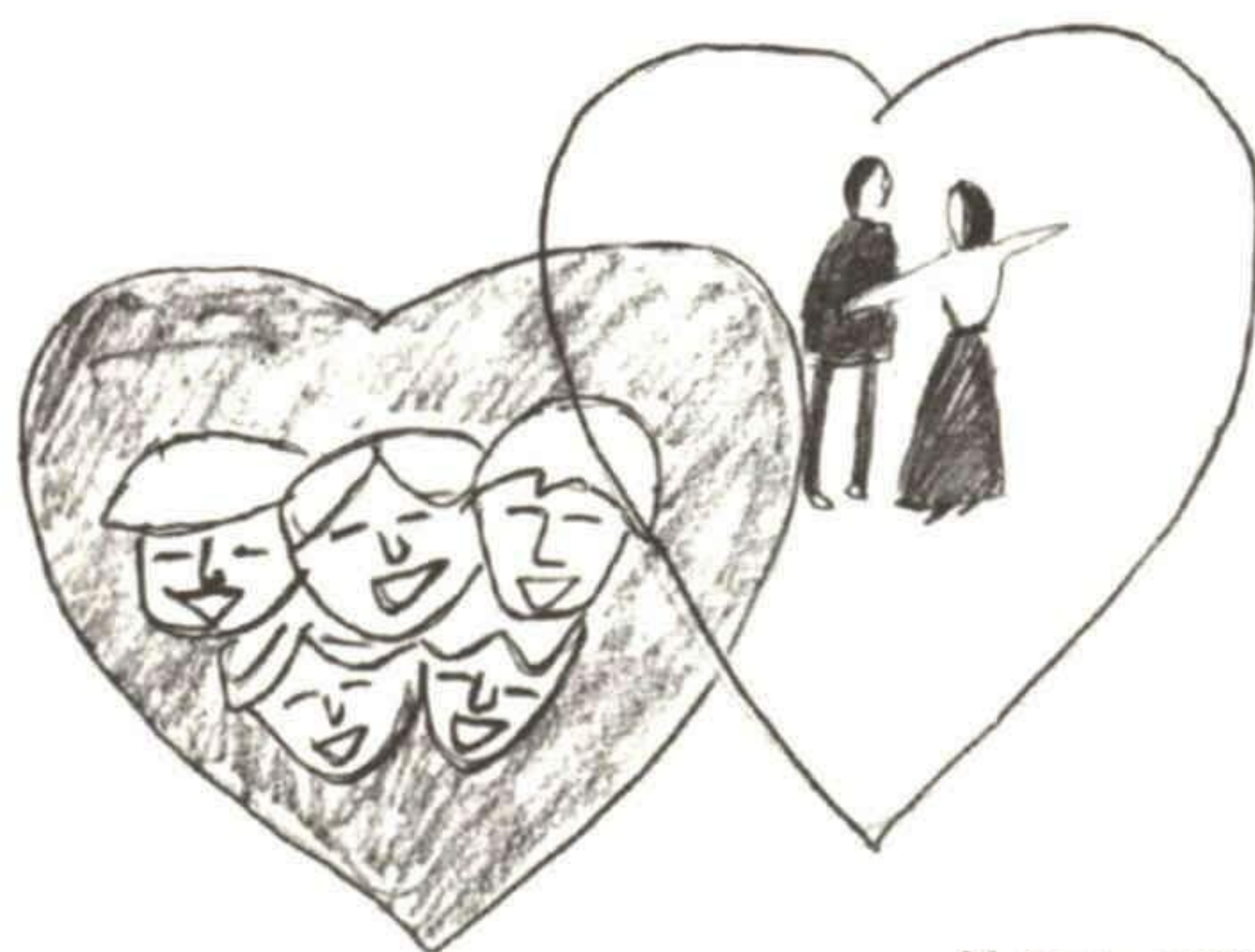
50억이 넘는 수많은 지구인들이 내뿜는 아우성 때문에 이제는 지구 자체가 신음하고 있다.

지구는 오존층 파괴로 하늘이 무너지고, 매연으로 공기는 숨막히고, 폐수로 물은 썩어가고, 온실효과로 해수면은 올라가고, 녹지대는 사막화되어가고, 기후의 대변동은 서서히 진행중이고, 우리나라는 중금속으로 위험한 황사가 비가 되어 내리고, 바람이 불면 하늘을 물들이고 이처럼 많은 여건들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인간들이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 인간성 매물, 인간상실, 인간소외로 인간이 인간을 다시 찾으려는 하소연이 일기 시작되게 되었다.

우리 인간들은 유사 이래 종교나 그와 비슷한 믿음으로 인간정신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종교보다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2~3백년을 유지해오다 그 후 200년은 사실적 판단을 주로 하는 과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구조화를 느끼면서 21세기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은 과학적 사고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질문명의 극단적 발전에 앞서 정신적 문명이 앞서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 문명 속에는 사랑의 철



삼화/이영

학이 중심이 되게 되었으나 현재는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참사랑의 이미지가 약화되어있다.

사랑은 인간 행복의 원리다. 우리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곳에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다. 또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사랑이 단절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삶의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 사랑의 대화가 끊어지면 생활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사랑의 주인공이며 사랑의 관객이 될 때, 비로소 삶의 따뜻한 감정, 즉 행복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에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 혈족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부부간의 애정, 친구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포와 민족사랑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

랑, 사랑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의 진실된 마음은 곧 사랑이란 뜻도 성립되는 것이다.

도산선생은 사랑과 진실만이 우리 국가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진실 된 사랑의 감수성(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감정), 즉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의 슬픔과 즐거움을 알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 지도층의 인사들이라면 그곳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도 이웃과 남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때 나와 이웃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젠 사랑뿐이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실된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편 집 부 -

순은이야기

비어 있는 마음의 소유자

베를린 뒷거리 한 모퉁이에서 거지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그러나 행인들은 대부분 그 소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쁘게 제 갈길만을 가고 있었다.

소녀는 가냘픈 몸매를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선율은 더욱 구슬프게 들리는 것 같았다. 소녀 앞에는 골목의 꼬마들만 몇 명 모여서 구경할 뿐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 소녀는 기운이 빠져 한참 후에는 힘없이 팔을 내려뜨리고 말았다.

그때 어떤 젊은 신사가 소녀에게 다가가더니 바이올린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연주를 시작했다.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연주를 듣고 있을 때 연주를 끝내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며 돈을 던졌다. 그는 조용한 미소로 답례하고 나서 돈과 바이올린을 소녀에게 건네주고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젊은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다.

문화행사 이모저모

| 편집부 |

문화학교 주부노래교실

주부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가곡, 가요 등을 배우는 노래교실은 많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배우면서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는 문화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년교례회

매년 각 기관단체장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인사의 자리를 만들어, 홍성의 문화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가 2004년 1월 3일(토) 오전 11시에 군청대강당에서 열렸다.

정기총회

제43차 홍성문화원 정기총회가 2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감사보고 및 의안채택 및 심의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2004년 사업에 수렴하도록 하였다.



제3회 군민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지신밟기, 부럼깨기,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의 장을 열었다.

2004년 2월 4일(수)에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른들에게는 잊혀진 것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키고,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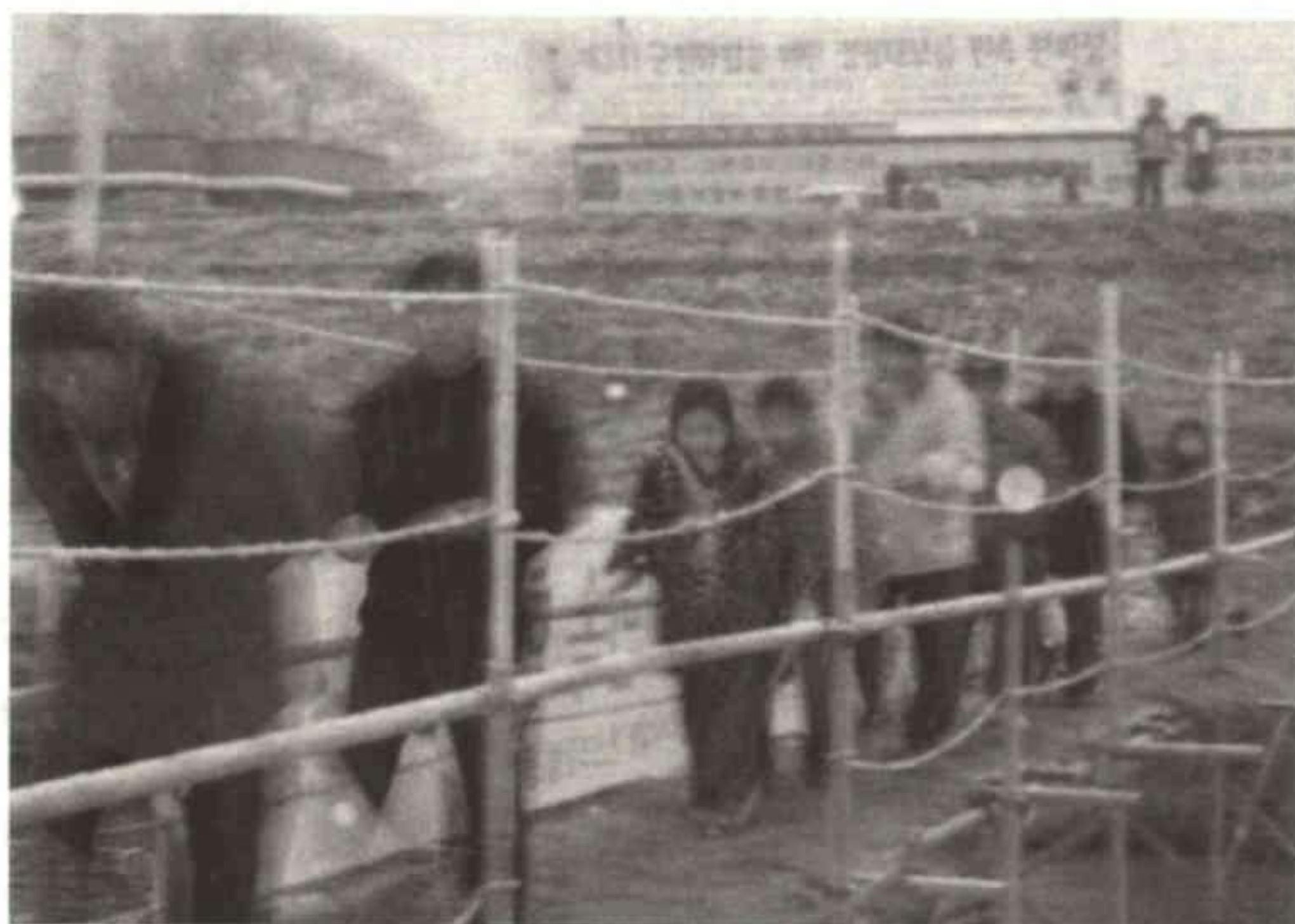


사진 설명

- 1)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 2) 악귀를 쫓는 의미로 다리를 밟는 모습
- 3)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소원을 쓰고 있는 모습
- 4) 군청 앞에서 지신밟기를 하는 모습
- 5) 쥐불깡통을 돌리는 모습
- 6) 소지를 달아놓은 달집을 태우는 모습

현재 문화학교 노래교실, 한문교실, 서예교실, 도예교실, 닥종이인형·비즈공예교실, 내고장역사교실 수강자 모집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 표지 안쪽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문화원에 전화주세요(Tel 041-632-3613)



거리제

- 홍성읍 고암리 신암동 -

김정현 동화작가 · 광동초등학교 교사



홍성읍 신암마을



제보자 유동우씨

- 조사 일자 : 1999년 2월 20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신암동 입구
- 제보자 : 유동우(남, 50세, 중졸,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구 98번지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유동우씨는 신암동 이장을 4년 동안 역임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과 함께 3년째 거리제 지내는 것을 뒷바라지해 오고 있다.

- 제보자 : 신경분(여, 44세, 중졸, 무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구 192번지
 - 나서 자란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 오산리

신경분씨는 신암동 노신제를 3년째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

1. 명칭 : 거리제(노신제)
2. 성격 : 노신
3. 신단의 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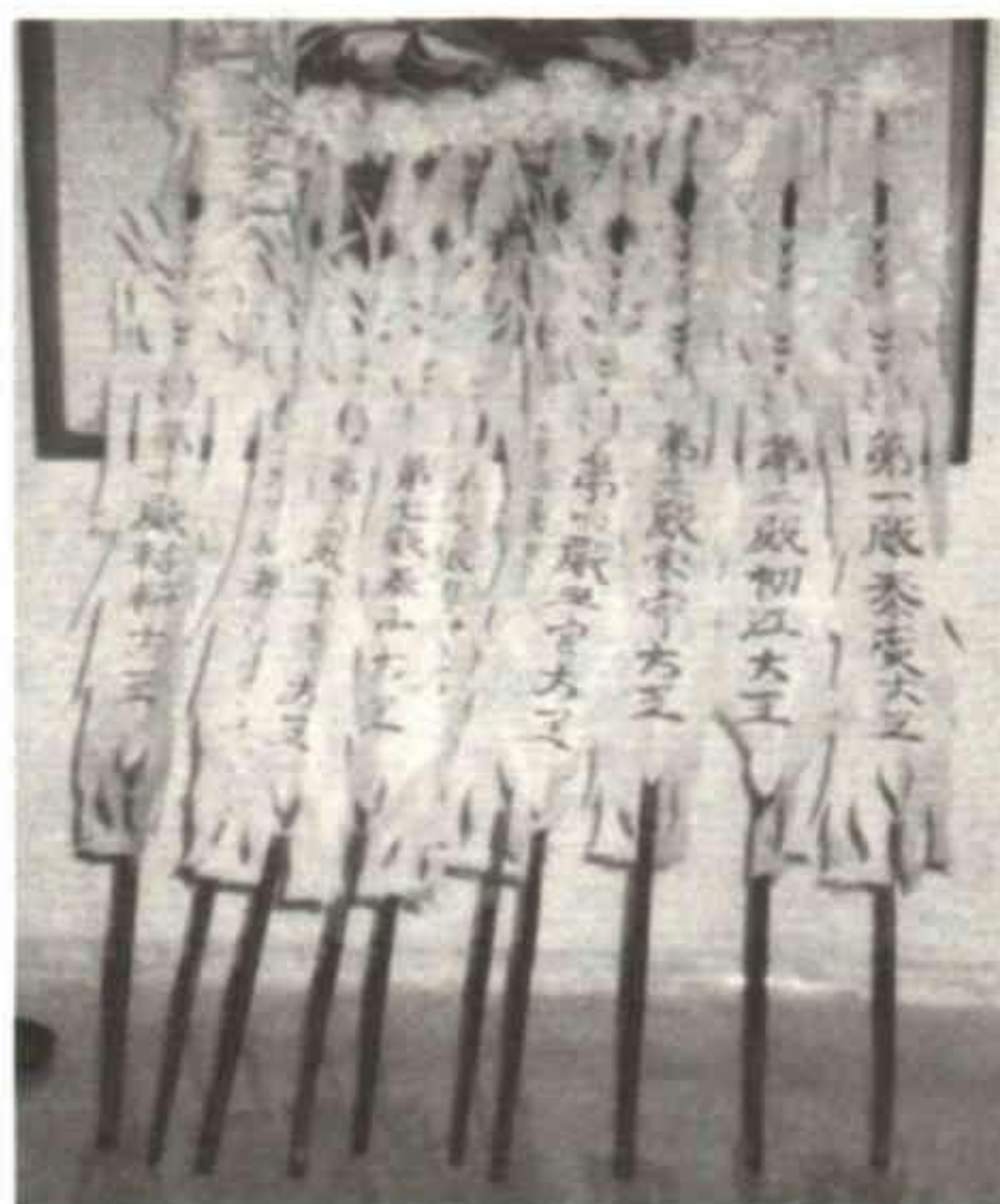
홍성읍에서 청양쪽으로 가면서 홍성중학교 앞을 지나면 역재 방죽이 나오고, 몇 십 미터만 더 가면 장항선 철길이 나온다. 철길을 건너서 백여미터쯤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신암동'이라는 마을 이정표가 서있다. 이정표 길 건너편에 있는 공터에서 거리제를 지내고 있다.

4. 신단의 형태 :

마을 입구 길가에 십여평 정도의 공터가 있다. 이곳에 임시로 천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5. 제의 목적 :

신암동 입구는 홍성에서 청양으로 향하는 아스팔트길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뚫려있다. 이곳으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한 속력으로 달리는 지점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빈번히 당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



십대왕

안 십삼 명이 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천도하려는 목적과, 사고 예방,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거리제를 지내고 있다.

6. 제일 :

신암동의 영암 마을 산신제를 지낸 후로, 음력 정월 보름 이전에 좋은 날을 잡아서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영암 마을에 사는 무속인 신경분씨가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

8. 금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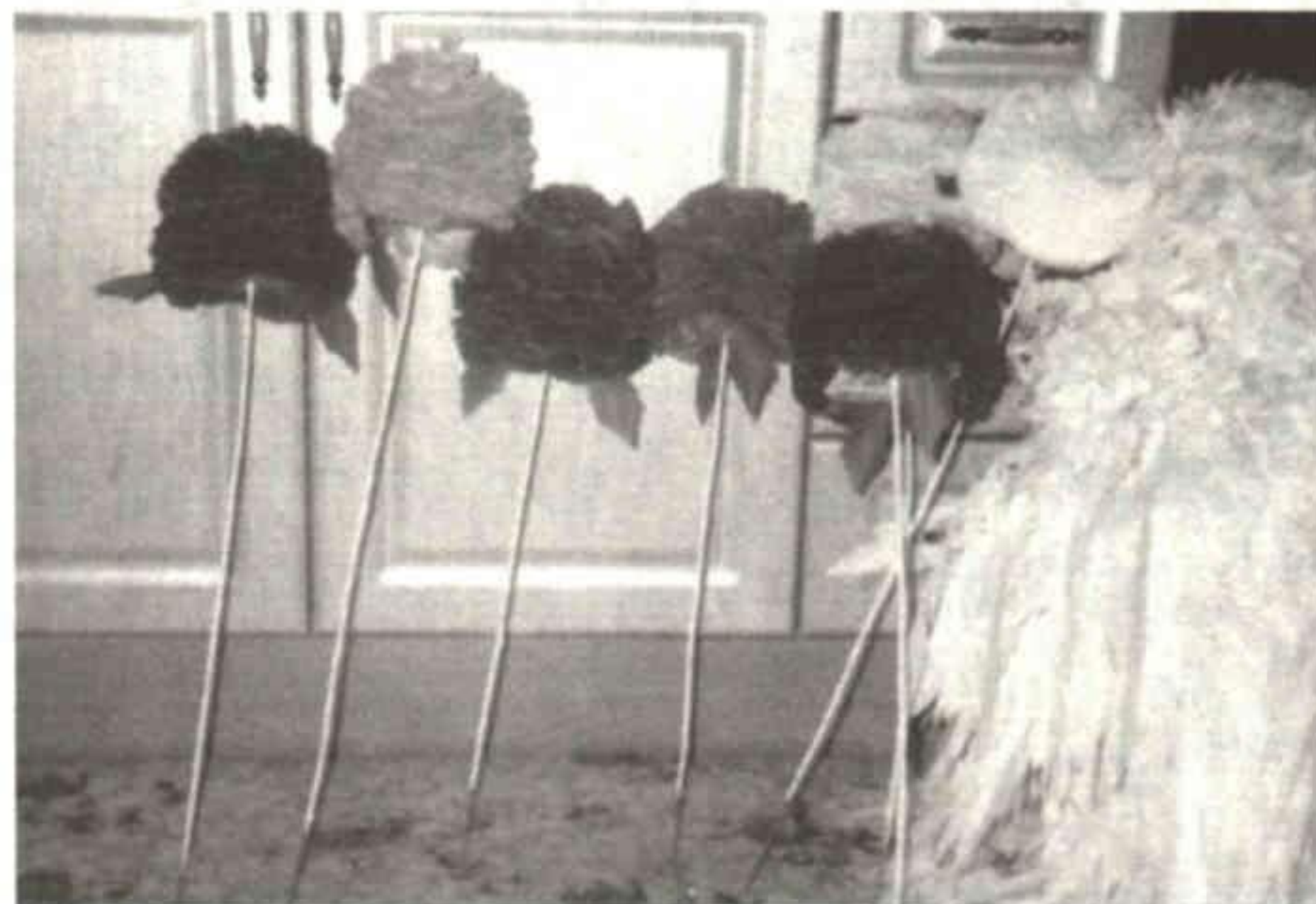
반드시 영암 마을의 산신제를 지낸 후에 지낸다. 거리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기도와 함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사과, 배, 바나나, 감, 감귤, 팥떡, 포, 돼지머리, 생고기, 대추, 밤, 미역국, 나물, 막걸리, 청수 등을 푸짐하게 준비한다. 제물 이외의 준비물은 종이에 형상을 그려놓은 십대왕, 영혼꽃, 영가옷, 등이 있다.

십대왕의 의미는 죽은 영혼이 각자 인연을 맺은 대왕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지내라는 뜻이다. 각각 나이별로 6생씩 10대왕과 인연을 맺어서 모두 육십갑자가 된다. 십대왕은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재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병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율대왕이다.

영가꽃은 죽은 영혼의 수대로 준비한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자리에 불을 붙여 놓는다. 이것은 환생의 의미를 갖는다. 영가옷은 어린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데 입고 가라는 의미이다.



영가꽃

제의 절차는 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이 장만한 제물을 진설한다. 음식은 되도록 푸짐하게 준비한다. 이것은 죽은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제의는 남자 법사가 축원을 하면서 시작한다. 이때 제의 주관자는 눈을 감고 앉아 신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남자 법사가 축원을 하는 동안에 구경온 마을 주민들과 일부 참석자들은 제상에 축의금을 얹어놓고 절을 하기도 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주관자의 표정과 행동이 변한다. 신이 내려온 것이다. 이때부터는 인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주관자는 제상 주변에 진열해 놓은 영가옷을 주섬주섬 몸에 입고 공수(귀신이 하는 말을 주관자의 입을 통하여 대신하는 말)를 하며 주변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주관자가 돌아다니는 곳은 주로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자리이다. 한참동안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죽은 자리에 영가꽃을 하나씩 놓고 불을 사른다.

또한 차려놓은 음식들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상에 차린 음식들을 모두 큰그릇에 담아 섞어서 길거리에 뿌린다. 이는 죽은 영혼들에게 주는 의미이다.

거리제의 큰 절차는 먼저 귀신을 불러들인 다음에 같이 즐겁게 놀아주고 다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형식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관자가 다시 본정신으로 돌아오고 돼지머리를 칼 끝에 세운다. 돼지머리가 잘 서면 귀신들의 마음이 흡족했고 거리제가 잘 끝났다는 의미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제살(몸과 주변의 잡귀를 쫓아내어 재액을 미리 막아주는 행위) 의식도 해준다. 주관자가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영가기를 가지고 축원을



영가옷



▲ 노신제 모습들

하며 참가자의 몸 주변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 다음 다섯 가지 깃발 중에서 하나를 뽑도록 한다. 흰색 기가 나오면 완전히 제살이 된 것이다. 푸른 종류의 깃발이 나오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흰색 깃발이 나올 때까지 앞의 행동을 반복한다.

신암동의 거리제에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거리제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거리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암동 부녀회에서 부담한다. 대략 200여 만원쯤 소요된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태도 :

신암동은 거리제를 마을 주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지내고 있다. 거리제의 효험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12. 유래 및 전설 :

신암동의 거리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삼 년 전부터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삼 년 예정으로 시작했다. 올해 지낸 것이 세 번째이다. 거리제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특별히 전해지는 얘기는 없다.◇

홍주목사 이한일(李漢一)



배동순 향토사학자

영조실록 114권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한필수(韓必壽)를 대사간으로, 권영(權穎)을 집의로, 이치중(李致中)을 사간으로, 김상집(金尙集)·김재천(金載天)을 장령으로, 서유원(徐有元)을 헌납으로, 이한일(李漢一)·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임희중(任希曾)·이범제(李範濟)를 정언으로, 조종현(趙宗鉉)을 교리로, 이양수(李養遂)를 부교리로, 홍상간(洪相簡)을 수찬으로, 김기대(金基大)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제117권

간원(諫院)(대사관 이한일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부터 척신(戚臣)과 의빈(儀賓)·종친(宗親)은 삼사(三司)의 임명에서 분간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대개 일시의 특별한 하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수(李會遂) 같

은 이에 있어서는 척신도 아니고 의빈이나 종친도 아닌데, 공족(公族)이라 말하며 원인(援引)할 수 없는 혐의를 억지로 끌어다가 장황하게 상소하였으며 언급한 말 또한 구차하였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건대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오니, 청컨대 파직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근래 이목지관(耳目之官)이 우유부단(優柔不斷)한 것은 모두가 여러 대신(臺臣)들의 죄이오니, 일전에 하교하실 때에 ‘종각 절인(鐘閣乞人)’이라고 하신 네 글자는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말씀이 과중하신 것이오니 신 등은 그날의 하교는 거두셔야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6일(갑진)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간 이한일이 아뢰기를,

“이정철(李廷喆)은 일찍이 우윤(右尹)으로 있

“지난번에 이병정(李秉鼎)이 권진(權禎)을 논핵한 것은
겉으로는 공분(公憤)인 듯하나 실은 앙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회(權恢)가
대각(臺閣)에 들어감에 있어 이병정을 논핵하려고 정본(正本)을
써놓고 주요 내용은 이미 누출시켰습니다.”

을 때에 송사(訟事)하는 사람에게 강요하여
뇌물을 후히 받았으며 승자(陞資)한 뒤에도
그 사건을 움켜쥐고 제사(題辭:송사에 대한 관
부의 판결이나 지령(指令))를 내주지 않고 있
으니, 신은 빨리 그에게 삭판(削版)의 형전을
시행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기에도 몹시 놀랍다. 아뢰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4일(임진)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지평 이한일이 아뢰기를,
“이번의 한권(翰圈)은 전연 공평하지 못하여
물 의(物議)가 자자하니, 주관한 사람을 건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주(遺珠:인재가 누락된 것)가 있었구나! 대
각(臺閣)이 적막하던 때에 이러한 소회(所懷)

가 있었으니, 나도 모르게 눈이 뜨인다. 권점
(圈點)을 주관한 여러 한림들에게는 모두 서
용하지 않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이한일이 또 아뢰기를,
“정주목사(定州牧使) 이정수(李廷壽)는 본래
용렬한데다가 정신이 혼모하여 전연 일을 일
답게 처리하지 못하니, 척파(斥罷)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그를 체직(遞職)하라.”

12일(무자)

지평 이한일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병정(李秉鼎)이 권진(權禎)을 논
핵한 것은 겉으로는 공분(公憤)인 듯하나 실
은 앙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회(權恢)가
대각(臺閣)에 들어감에 있어 이병정을 논핵하
려고 정본(正本)을 써놓고 주요 내용은 이미
누출시켰습니다.”

홍주읍성

조원찬 결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살고있는 홍성, 우리는 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홍성을 모른다면 어느 누가 홍성을 알아줄까? 마음이 아픈 일이다. 홍성에는 선사시대 이래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 자원이며, 공해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모른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면서 여행하면 먼 곳, 가보지 못한 곳부터 찾는다.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홍성에 오도록 하면 어떨까?>

■ 홍성의 역사 지켜 본 홍주읍성 ■

홍주읍성은 조선시대에 홍주목을 다스리던 곳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주성이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홍주읍성이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홍주읍성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청이 있고, 전쟁이 나면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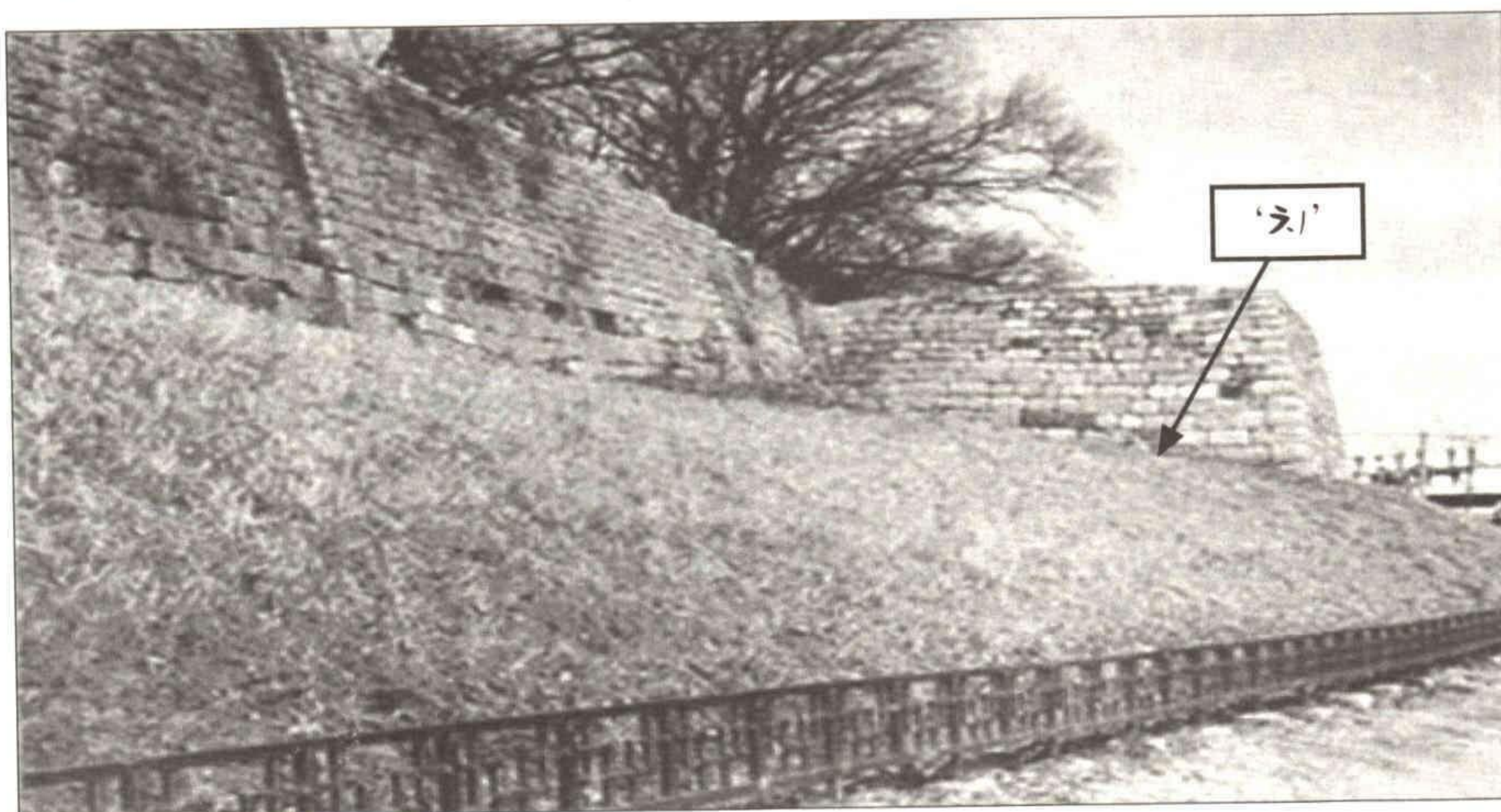


<하늘에서 바라 본 홍주읍성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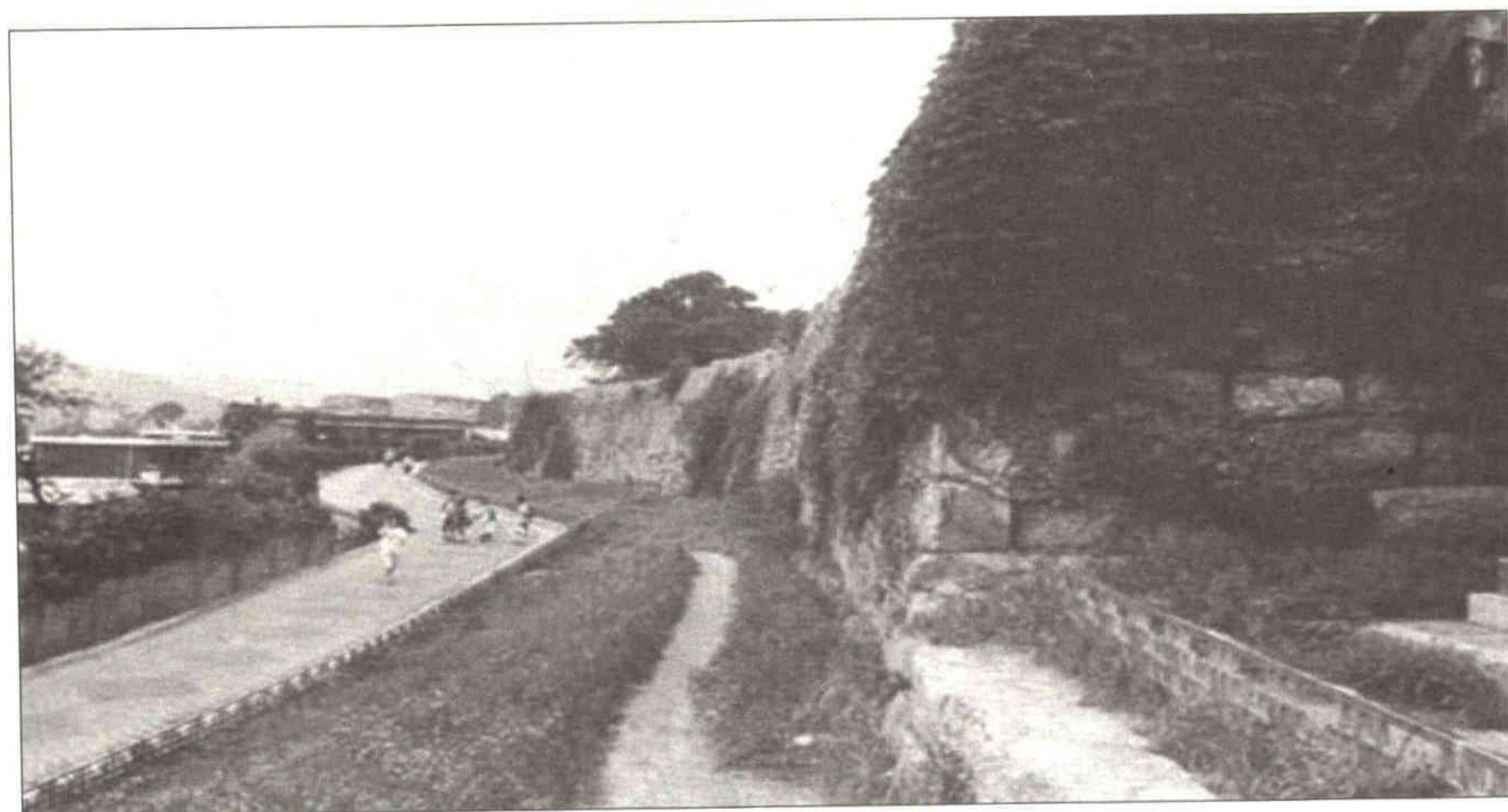
홍주읍성은 홍성읍의 중심부를 흐르는 홍성천과 월산천 사이에 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크고 긴 돌을 밑에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작은 돌로 쌓았다. 언제 처음 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홍주목의 읍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홍주읍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홍주읍성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홍성읍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성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자. 성은 성문과 성벽으로 나뉘어진다. 성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현재 홍주읍성에 남아있는 성문으로는 조양문이 있다. 조양문은 ‘아침에 뜨는 해를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동쪽 문에 해당한다. 그 외에 서쪽과 북쪽에도 조양문과 비슷한 문이 있었다. 그러나 남쪽에는 필요에 따라 지금처럼 문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없었던 때도 있었다.

성벽은 크고 작은 돌을 쌓아 적들이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벽은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적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치’는 길고 반듯한 성벽의 중간에 성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것인데, 다음의 그림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치’는 성벽에 가깝게 붙은 적을 여러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동남쪽 성벽과 ‘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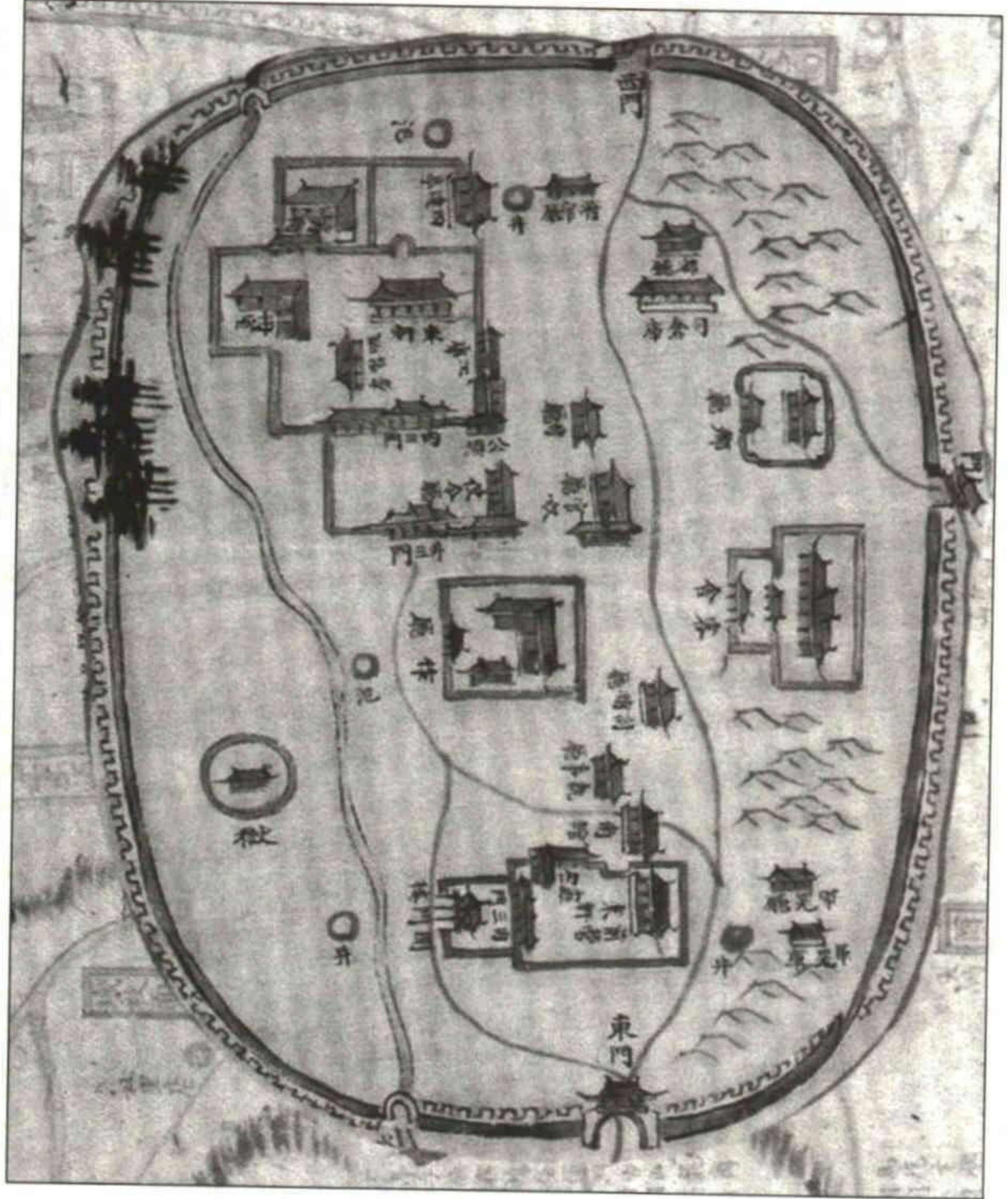


<남쪽에서 바라 본 홍주읍성 성벽>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성벽은 전체의 성벽 둘레인 약 1,460m 중에서 700여m 정도만 남아 있다. 동쪽 성벽은 남쪽 성벽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약 250m 가량 남아 있고, 남쪽과 서쪽의 성벽이 남아있

다. 성벽 밖의 높이는 대략 4~5m 정도인데, 부분적으로 고쳐 쌓아진 상태로 남아 있다.

홍주읍성의 옛 지도를 보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제시대 이후 없어져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그러면 대표적인 건물들을 뽑아 각각의 건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동헌’에 대하여 살펴보면, 홍주읍성 안에는 두 개의 ‘동헌’이 있다. 하나는 홍주목사가 일을 하던 홍주목 동헌(=안회당)이고, 다른 하나는 충청도 전영의 군대 지휘관이 일을 하던 전영 동헌이다. 이렇게 두 개의 동헌이 있었던 것은 행정적·군사적으로 우리 고장 홍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홍주목 동헌에 딸린 ‘내야’는 홍주목사의 개인 생활 공간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홍주목의 동헌과 관련된 건물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안회당(=동헌)·홍주아문(출입문)·여하정(연못 위의 정자)’ 등이 있다.¹⁾



동헌 이외의 건물로는 남관·객사·향청·작청 등이 있다. ‘남관’은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피해 우리 고장에 머물 때(1594년 선조 27년 2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지은 건물이다. 다른 고장에는 없고 오직 홍성에만 있었던 건물이다. 남관은 연회를 베풀거나 군인들을 정열시킬 때 사용하였다.

‘객사’는 ‘객관’으로도 불리우는 곳으로 왕 <1871년에 그린 홍주목 지도>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셔놓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하여 절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올 때는 잠잘 곳으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홍주 객사는 조선시대 태종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키다 실패한 ‘방간’이 홍주로 유배온 후 이곳에서 살다가 죽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향청’은 조선시대에 지방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던 곳이다. 그래서 향청에 속한 사람들은 지방의 행정을 맡아보던 수령을 돕는 한편으로, 그 지방 출신의 낮은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작청’은 지방 행정의 실제 업무를 보던 아전들, 즉 이·호·예·병·형·공방의 아전들이 업무를 보던 곳이다.

1 산성(山城) - 산성은 산에 성을 쌓은 것이다. 읍성과 다르게 산성은 주로 적들이 쳐들어 왔을 때,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쌓는다. 우리 고장 홍성에는 월산 꼭대기에 있는 월산산성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산성이 있다. 용봉산의 용봉산성, 홍성읍의 구룡리산성, 장곡면의 학성산성, 결성면의 결성산성, 금마면의 송암리산성

그러면 홍주읍성의 다른 문들은 어디에 있을까? - 홍성의 땅이름 가운데 ‘서문밖·남문밖·북문교’ 등이 있다. 이런 땅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바로 그곳에 서문·남문·북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 운주에서 고려 태조의 왕비를 배출하다 ▣

먼저 고려 태조의 왕비가 어떻게 운주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현재 홍성군의 중심 지역인 홍성읍은 고려시대에는 ‘운주’라고 불리웠고, 그 이전에는 ‘해풍향’이라고 불리웠다. 해풍향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했을 때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신하와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신라는 백제 부흥군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다시는 신라에 배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통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백제시대에는 없었던 지금의 홍성읍 지역이 ‘해풍향’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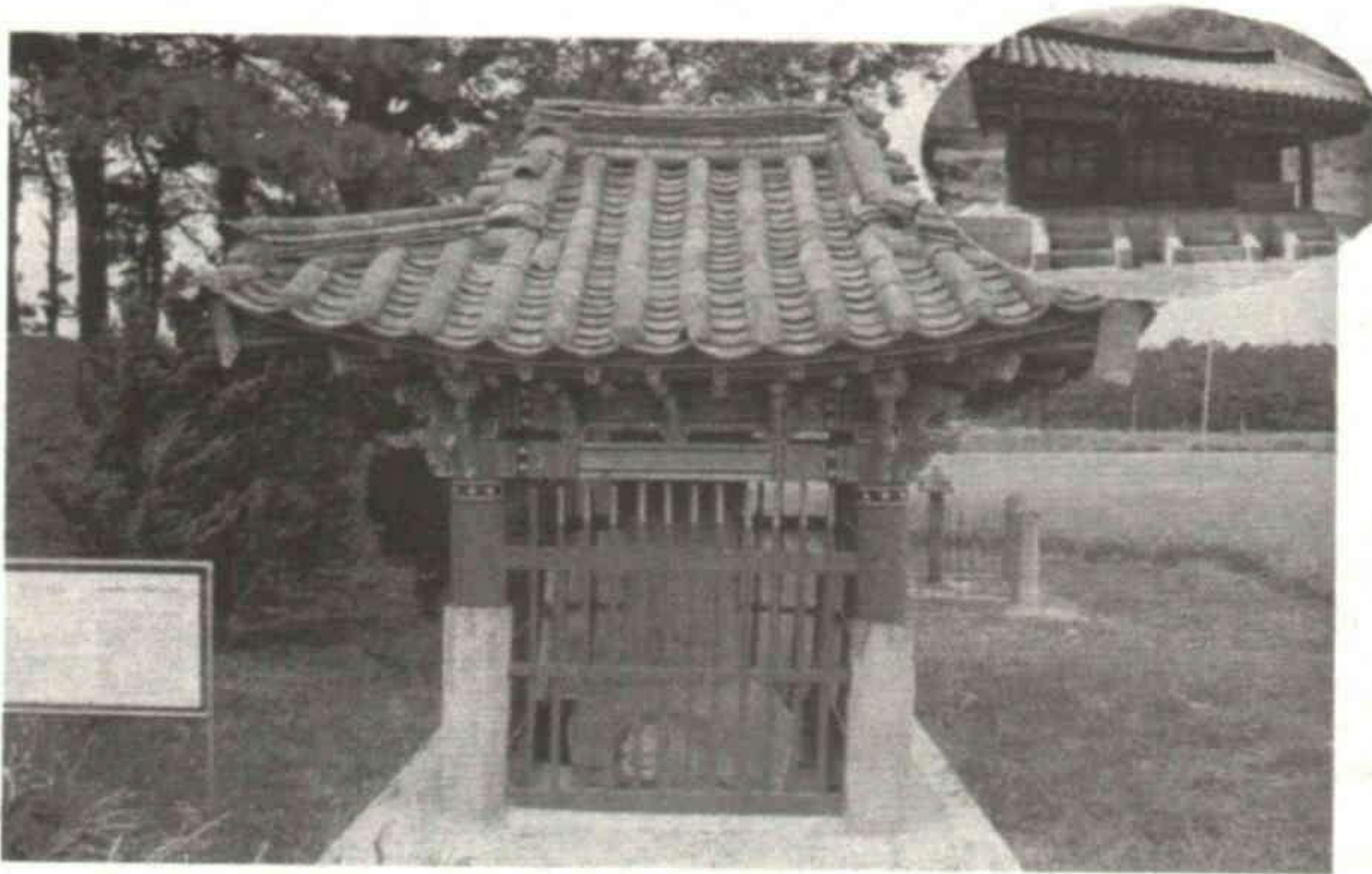
그렇지만 해풍향에 살던 사람들은 백제시대에 대부분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던 사람들이라서 주변 지역에 큰 힘을 미칠 수 있었다. 그 힘은 훗날 신라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궁예와 견훤이 등장하는 후삼국시대에 이르면 ‘운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운주에 사는 사람들이 견훤의 후백제 편에 서면 주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후백제 편을 들었고, 반면에 운주가 궁예의 후고구려 편에 서면 또 후고구려로 넘어갔다. 이렇게하기를 여러 차례, 결국에 운주는 새롭게 고려를 세운 왕건 편에 섰고, 왕건은 너무도 큰 힘을 얻어 기쁜 나머지 운주에서 가장 큰 세력가인 홍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 왕비가 바로 흥복원 부인이다.²⁾ 이를 계기로 운주는 지금의 홍성군 주변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2 고려 태조 왕건의 왕비는 몇 명일까? – 우선 우리 고장의 흥복원부인은 12번째 왕비이다. 그 외에도 고려 태조 왕건에게는 많은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들만 기록한 책에 의하면 29명의 왕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왕건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왕비가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왕건의 힘이 약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건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29명의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또한 많았었는데, 왕건은 이 과정에서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거나, 왕실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근친결혼’을 시켰다는 것이다. 근친결혼이란 자기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들·딸이라면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관철됐던 모양이다.

■ 청난공신 홍가신, 이몽학의 반란 물리치다 ■

홍주읍성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에 이몽학의 반란을 물리친 홍가신 목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가신(중종 36, 1541 ~ 1615, 광해군 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홍도(興道), 호는 만전당(晩全堂)·간옹(艮翁)이며, 1594년에 홍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2년 뒤 홍주까지 쳐들어 온 이몽학의 반란군을 물리쳐 ‘청난공신’을 받았다.

‘이몽학의 난’은 임진왜란 중(1596년, 선조 29)에 왕실의 서얼 출신이었던 이몽학이 불평불만에 가득찬 백성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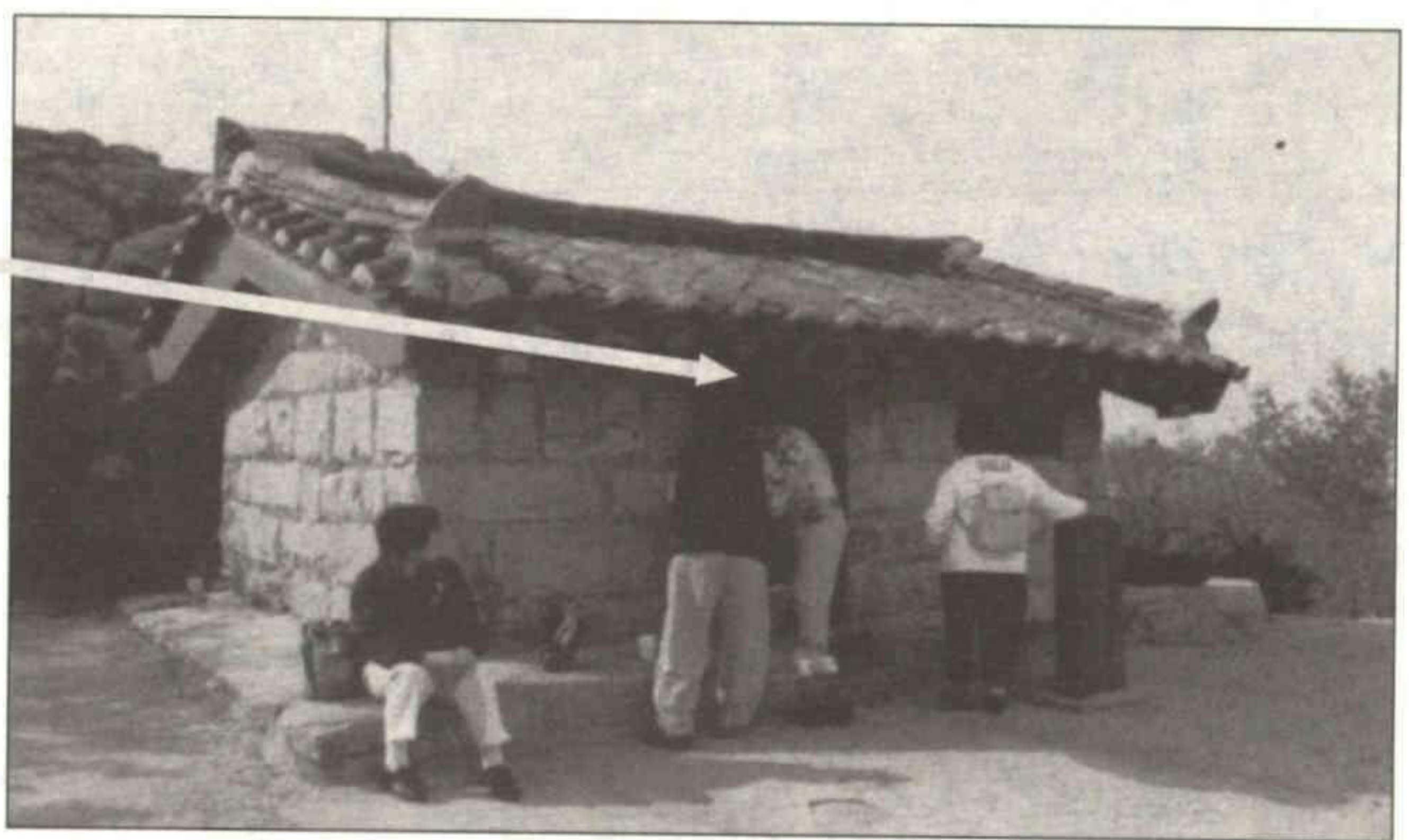
<홍가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청난공신 비석과 사당>

이몽학은 충청도 홍산(부여 홍산면)에서 난을 일으켜 성공한 뒤 임천군(부여 임천면) → 정산현(청양 정산면) → 청양현(청양읍) → 대흥군(예산 대흥면)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충청도 서북부의 중심지인 우리 고장 홍주를 침범하였다.

이때 홍주목사 홍가신은 마음 속에 큰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란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보는 한편, 반란군과 맞서 싸

울 백성들을 모았다. 또한 주변 고을에 긴급히 군사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체찰사 종사관 신경행·수사 최호·충청병사 이시언·어사 이시발·중군 이간 등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우리 고장에서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박명현·임득의 등이 모은 백성들의 군대가 힘을 합쳐 이몽학의 반란군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이르던 혼란한 때에, 나라를 구한 홍주목사 홍가신은 그와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1604년에 청난공신(淸難功臣)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월산의 ‘산신’ 홍가신 장군을 찾은 아주머니들과 ‘홍장군 일행들’>

질병과 사회

김용신

수필가 · 김내과의원 원장



질병은 개인의 병이다. 아프면 직장을 쉬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잠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때도 있고 크게 고통받거나 오래 끌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혼자 앓으니 개인적이라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그 가족이 관여하게 되고 친구들도 몰려들어 환자를 향한 동정의 눈빛과 축축이 젖은 음성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그가 속한 작고 큰 모임의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욱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앓게 되면 주위의 파급효과는 더 크게 되고 부정적 영향이나 때로는 긍정적 영향도 미치게 된다.

결국 개인적 질환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의 얽히고 설킨 모든 요소들이 개인의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직접 일으키기도 한다.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 개개인의 질환의 최대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스가 한동안 공포를 불러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조류독감으로 나라가 지구촌이 난리다. 이것은 자연환경이나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인위적 환경으로 인한 것인데 요즘은 인위적인 요소가 더 큰 것 같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시적이고 유행하는 철이 있다.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계속적으로 파멸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는 시급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현상 중에서 윤리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타락과 혼란은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많은 질환을 만들어낸다. 육신적인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많이 생겨나게 한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감소시켜 각종 질환의 밑거름 역할을 하여 감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성 궤양 두통 관절염 치질 건갑통 정신신체질환 우울증

불면증 등 등 수많은 병들을 일으키고 있다. 영양분의 치우침 편식 영양결핍 비타민 부족 각종 미네랄의 결핍 등이 겹쳐져서 위에 언급한 질환들이 보다 쉽게 생겨나게 한다. 더욱이 환경호르몬 방부제 항생제 잔류농약 건축자재 페인트 밀폐공간 산소부족은 아예 바탕기본유해물질로 이미 물과 공기처럼 인류와 묶여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경제불황의 바탕에는 부패와 부정이 있다고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정직하고 근면한 정신이 앞서야 된다고 사사로운 이기심 집단이기주의 편견으로 가득찬 자기합리화 등등이 자신을 속이고 장부를 분식하며 기업의 골격구조를 끊어놓고 있다고

우리 신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다. 정신이 뇌물을 먹으면 감시기능이 마비된다. 정신이 부패하여 사회에서 뇌물을 쳐(?)먹으면 감시기능이 마비되거나 눈감아주게 되어 썩어져 가는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굼게 내버려두게 된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감시세포인 백혈구의 임파세포가 세균이 침입해도 모른체 하고 암세포가 생겨나도 잡아먹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간첩이 침입해도 내버려두는 것과 비슷하다. 현대의 대표적 질환인 에이즈도 감시세포인 임파구를 에이즈바이러스가 교묘히 침입하여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현역군인인 백혈구의 중성구가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낮잠자서 중병으로 발전하는 질환인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재하여도 각종 화학물질이, 활성래디칼이, 미네랄과 비타민 부족이 감시체계를 또한 무디게 하여 각종 병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긋기는 힘들지만...

이제 답은 명확해진다. 식생활, 영양분섭취, 유해물질 차단, 건전한 사회, 유모어, 용서와 화합, 경제정의의 확립 등등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높일 것이다.◇

홍성 연극의 선구자, 이상헌님을 찾아서

권기복 홍주중학교 교사



『홍성무대』의 산증인

<이 짓거린 그만 뒤. 자넨 할미새야. 부러진 날개로 독수리까지 없을 수야 없잖은가?/ 자넨 불상 하난 만들지 몰라도 불도(佛道)는 망각해 버렸어./ 시체를 피해서 불상 제작에 몰두해?/ 불상이나 시체나 다 똑같은 집착이야. 그것도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탄성스님의 역을 맡은 배우는 걸쭉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법스님을 향해 매몰차게 꾸짖었다. 빈틈없는 몸짓과 동작, 표정은 관중들의 가슴까지 쓸어내게 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집착은 끝이 없어. 하나의 집착은 또 다른 집착을 불러일으키거든./ 선방에 가버려. 허리춤에 붙은 뱀 집어던지듯이 획 던져버리라고>

그의 호통은 갈수록 깊어져 갔다. 그의 호통은 도법스님이 아닌, 관중의 가슴 가슴을 향해 화살이 되어 날아들었다. 이만희 희곡인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에서 이상헌님은 탄성의 역을 맡아 열연을 하였다. 관중들의 박수소리도 다른 극단에 비해 『홍성무대』가 훨씬 높았고, 다른 배우에 비해 탄성스님의 역을 맡은 이상헌님에게 쏟아졌다.



극단 『홍성무대』의 제7회 정기공연장 앞에서

송별식 자리였다. 이상헌님은 필자와 가까운 관계(호형호제)를 맺고 있어서, 본 글에서 멀리하고 있었다. 그 날도 같은 모임에서 이상헌님의 중국 텐진 한국인 학교 특과 교사로 떠나는 것을 축하 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술 한 잔을 나누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홍성무대』 단원들도 함께 하였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릴 대장정의 길이었다. 형은 연일 마련된 송별식 때문에 오히려 병날 지경이었다. 그만큼 그의 행적이 만만치 않은 소치였다. 이번에 필자의 글 마당에 상재한다 해도 별 탈은 없을 듯 싶었다.

-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 태어나기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라는 곳이지만, 차남인 아버지께서 분가하셔서

자라기는 탄천면 덕지리에서 자랐어요. 탄천에서 중학교까지 생활하고, 공주시내에서 공주고, 공주사대 중국어 교육과를 졸업했지요.(반말이 더 많은데 가능하면 안 한 것으로 정리하겠음)

사진 몇 장을 얻기 위해서 댁으로 방문하였다. 집은 초라한 편이지만,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얹잡아보기(?)는 어려웠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여자 어린이만 같던 큰딸이 중학교 입학 앞두고 금방 소녀다운 모습이 박혀 있었다. 막내 딸이 아직은 어린 아이 티를 벗지 않아서 녀석에게 과자봉지를 건네주었다. 내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도 사람들은 항상 나는 그대로인데, 다른 집 아이들만 무럭무럭 크는 모습을 느낀다. 큰아들은 예비고등학생으로서 늘씬하고, 어른 티가 났다. 요즘은 천장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잘 크는가보다.

-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경찰 생활을 좀 한 것으로 들었는데……?

= 내가 대학진학이 좀 늦은 편이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가서 전투 경찰을 지원하였어요. 전경 생활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했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 학사경찰을 뽑기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사(요즘은 경위부터 출발함)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지요. 첫 발령은 경북 청송경찰서 정보 3계장이었어요. 그 후에 전경 소대장으로 경산, 안동, 구미, 달성, 포항 등에서 근무했지요. 경찰생활 3년이 지나자 온몸과 마음이 피곤하더군요. 그 때 그대로만 생활했으면 지금쯤 상당한 직책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교단에 서고 싶었어요.

- 그럼 교직생활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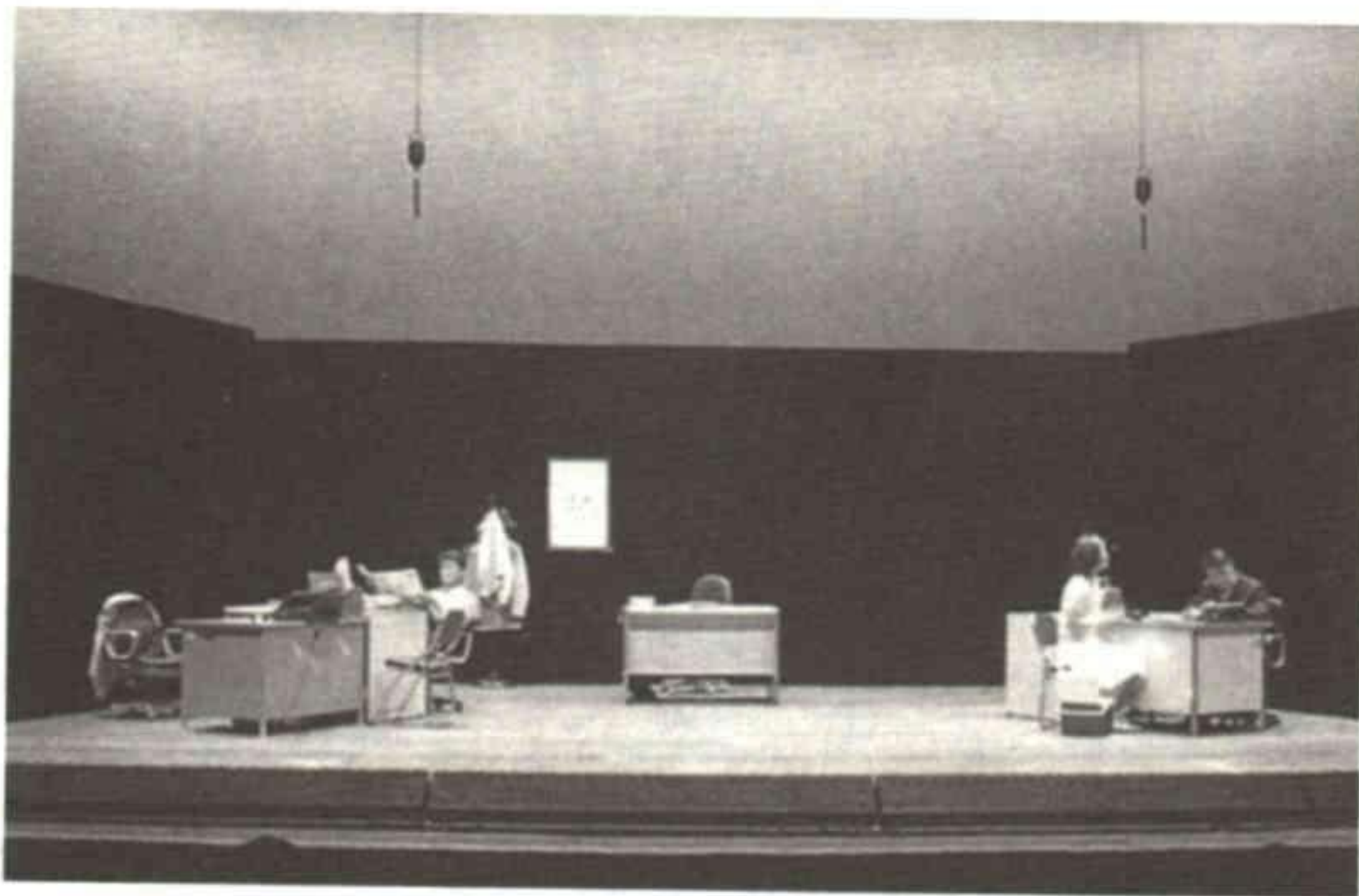
= 1990년 홍성고등학교에 초임으로 부임하였지요. 그 후에 대천고에서 3년, 온양고에서 1년하고, 다시 홍성고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홍성에서만 교직생활을 한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 형은 『홍성무대』를 창설한 산파로 알고 있는데, 그 계기는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 대학에서 연기를 좀 한 일이 있어요. 정신 없이 바쁘던 경찰생활에 비하면, 교직에 몸을 담으니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더군요. 그래서 정영일, 전인섭, 이재운, 김동남, 김주윤 등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극단 『홍주』(1993년 6월-1995년 극단 『홍성무대』로 개칭함)를 창단했지요. 처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 사회복지관에서 연습하여 1년만에 홍성문화원 2층에서 《어느 날의 환상》(하유상 작, 정영일 연출)을 시연했지요. 그 후로 매년 1편씩 정하여 단원끼리 연습하고, 홍성 지역에서 공연을 하였지요.

- 그 동안의 수상과 행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난 제17회 충남연극제(1999년 4월 서산문화회관)에서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라는 작품에 탄성스님 역으로 출연하여 남자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령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대천극단』(1997년)을 창단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보령지역의 청소년 극단인 『망태기』를 창단하여 지도하였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는 아산지역교사 연극연구회를 창단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아산지역 학생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사위원 등을 부탁 받으면서 바쁘게 뛰어다녔지요.



제6회 정기공연 <돼지와 오토바이> 중에서

- 뭘, 심사비도 많이 챙겼겠는걸요.(필자도 술한 잔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서 함께 눈빛을 맞추고 웃음) 홍성에서 극단 생활 이외의 활동을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 = 홍성고의 연극지도는 『홍성무대』 단원인 전장곤 선생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녀석들』을 맡아보았지요. 충남 청소년 연극제에서 단체부문 은상을 2회 수상하고, 개인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가 있지요.
- 연극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 홍성도 그 전에는 전혀 연극 활동이 없었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도 굳건한 극단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경로효친 구현과 함께 예산과 홍성에서 무대에 올렸지요. 처음 이런 공연을 대한 많은 시골 노인 분들이 손을 잡고 쓰다듬으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었을 때, 가슴 한쪽이 찡해지더군요.

차상이 마련되었다. 커피를 담은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근래에는 『홍주문학회』(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으로서 소설 쓰기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필자도 몇 편의 원고를 받아보고, 함께 품평을 나누기도 하였다. 글을 몰

고 가는 구성력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아직은 문장력과 내면화된 표현이 미흡함을 느끼지만, 그의 열정 앞에는 머지않아 역작을 내놓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인(필자가 형수님이라 부름)이 과자를 접시에 내놓았다. 부인도 『홍주문학회』 회원으로서 3년째 사무국장을 맡아보면서, 회원들의 결속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형수는 시를 쓰고 있는데,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일상(日常)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늦깎이로 시작한 서예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 미인을 곁에 두게 된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건 비밀입니다. 권 선생이 소설을 쓰던가.

- 그러지 말고, 조금만 운을 떠 주시죠.

= 비밀로 한다니까요.

그는 단호했다. 멋진 경찰 제복과 좌중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능란한 달변과 거리낌없는 표정. 필자도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의 뜻을 따르는 한편 이 글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덮어두기로 하겠다.

- 아이들을 셋 두고 있는데, 온 가족이 예술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자랑 좀 해 주시겠어요.

= 가족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아들 주형이는 지난해에 만화회화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창작만화부문에 소질도 있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큰 딸 연지는 작년 1학기에 홍남초등학교 회장을 하였지요. 애가 사교성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글짓기와 그리기에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작년 한 해에 받은 상장만 하여도 50여 장이 될 것입니다. 막내딸인

서연이도 언니와 같은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자매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쩐지 자식 자랑에 침을 튀기는 모습이 팔불출이 아닌가 싶었다. 팔불출! 팔불출! 자꾸만 놀리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필자의 자식들이 그만큼 잘 나가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시기심의 발로였다.



큰딸의 졸업식에 모인 가족들

- 아이들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었다. 자식들이 한결같이 못하는 것이 없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버려두어도 알아서 잘 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배부름이 아닐까?(이제 필자의 꼬인 속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음)

끝없는 인생 탐험가

방 한 구석에는 여행용 가방 2개가 배불리 먹고 벽에 기대어 있다. 내일이면 서울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지난 해, 여름에 중국 파견 교사를 뽑는 시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을에는 단 한 명을 뽑는 시험에 전국에서 50여 명이 응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필자는 응시한 자체를 훌륭하게 여겼다. 떨어지면 어쩌랴.

도전해본다는 정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상현님은 평소에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즐겼다. 연극에 심취한 가운데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우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대학원 석사 과정을 2회에 걸쳐, 국어과 부전공 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1차에서 2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기회는 그 중에서도 단 1명뿐이었다. 다행히 2차에도 합격 소식이 들렸다. 그 후로 각 국가 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내일이면 떠나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후일에 안 사실이지만, 가족들도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기로 정해졌다.)

- 생활 철학이랄까, 평소의 소신과 장래 희망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설 좀 잘 쓰고, 치매 안 걸리게 늙으막까지 연극을 할 수만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가 있다. 새로운 이국 땅에서 새롭게 정착할 것이다. 그의 진면목을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그를 보려면 전화 한 통화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마음 한 쪽을 허전하게 만들지만, 훨씬 안목이 넓어진 그를 대할 날이 있으리라.★



제11회 정기공연 《김정고무신》중에서

팔영산(八影山)

(608.6m)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



정 태 봉
홍성강남공인중개사

□ 영산(靈山)으로서의 전설

중국의 위(魏)나라 때의 일이다. 하루는 척발왕이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세숫대야의 맑은 물 위에 여덟 개의 산봉우리가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이 산은 반드시 영산(靈山)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신하들을 시켜 세상에 나아가 이 산을 찾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산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신하들은 갖은 고생 끝에 한반도의 남쪽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 산을 찾았다는 말에 왕은 기뻐한 나머지 몸소 이 산에 와서 산신께 산제를 지내게 되니 그때부터 이 산이 영산으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팔영산(八影山)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중국의 송(宋)나라 팔응(八應)장군이 백마를 타고 이 산으로 날아왔는데 팔응이라는 이름을 따서 팔봉산이 되고 팔봉산에서 다시 팔영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니 이 산이 영산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 고흥반도(高興半島)

한반도의 남쪽에 돌출 되어 있는 고흥반도는 예부터 관광자원과 유적들이 많다. 월정해안의 방풍림을 비롯하여 향교, 여도진성지, 홍교, 백도의 왜가리 도래지, 물만대, 금강죽봉, 거북바위, 활개바위, 서답바위, 마침벌, 상로수림, 꼭드녀, 소록도 등의 관광지로서 손꼽히고 있으며, 유적지와 사찰도 만만치가 않다.

신여랑장군정려를 비롯하여 송씨쌍충정려, 홍덕사, 송씨쌍충일렬각, 무열사, 수도암, 능가사, 운대도요지, 쌍충사, 장계산봉 화대, 마복산봉화대, 금탑사, 마복사, 유두산봉화대, 덕양서원, 소포봉화대, 충무사, 송광암, 적대봉봉화대, 봉래산봉화대 등이며, 팔영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유자공원 용바위터, 비자림 중앙공원 등의 휴식처로써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옛 고인들로 유둔고인들을 비롯하여 중산, 민동, 도천리에도 고인돌이 있으며 반도이고 보니 해수용장도 많아 대전, 풍류, 용동, 남열, 덕흥, 소록도, 발포나포도, 연소, 익금, 금장, 염포해수욕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개관

전남 벌교에서 고흥으로 가는 27번 국도를 따라 20km쯤 내려가다가 다시 855지방도로로 4km쯤 가면 점암초등학교와 점암중학교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포장된 도로로 4km 더가면 능가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팔영산을 바라보니 큰 석순(石筍)같은 암봉이 여덟 개가 줄줄이 서 있는데, 그것은 마치 진안(鎭安)에 있는 구봉산(九峰山)을 닮아있어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

등산을 하다보니 그 봉우리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제1봉은 유영봉, 제2봉은 성주봉으로 어떻게 하다보니 1.2봉의 높이는 적지 못하였다. 제3봉은 생황봉으로 564m이었고, 제4봉은 사장봉으로 578m이었다. 제5봉은 오로봉 579m, 제6봉은 두류봉으로 596m이고 제7봉은 칠성봉 598m, 마지막 제8봉은 적취봉으로 608m 정상이었다. 5, 6봉쯤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산 뒤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전남의 월출산을 닮은 모양으로 우람하면서도 암만(岩巒)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이 산을 앞 뒤쪽이 전부 아름답기만 하였다. 불가(佛家)에서는 이 산을 능가산(稜伽山)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아마 이 산 아름다우면서도 성스러워 보여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큰 석순 같은 암봉이 8개가 줄줄이 서있다”

□ 능가사(稜伽寺)

주차장에서 약300m쯤 걸어 올라가니 등산로 입구인 서쪽산록에 능가사라는 옛 절이 있었다. 사천왕(四天王) 석상(塑像)이 매우 커서 눈길을 끌고 있는 일주문격인 천왕문을 넘어서니 절이 꽤 짜임새가 있어 보였다. 대웅전(大雄殿)이 중앙에 있었고, 그 주위의 응진각(應眞閣)과 원음요(圓音寮) 그리고 객사(客舍) 등이 모두 모양새 있게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 대웅전은 정면 5칸에 측



“능가사의 대웅전”

면 3칸으로 높이가 꽤 높아 보였다. 이 대웅전은 지방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우측 앞쪽으로 종각이 있었는데 좋은 동종(銅鐘)으로 무게가 1,500근으로 색인되어 있으니 어지간히 큰 범종이었다. 종 면에 색인된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종은 강희(康熙) 3년(1698년)에 주조된 것

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응진각은 상기(尙機)가 천왕문은 상종(相宗)이 원음요는 해은(海隱)이 각각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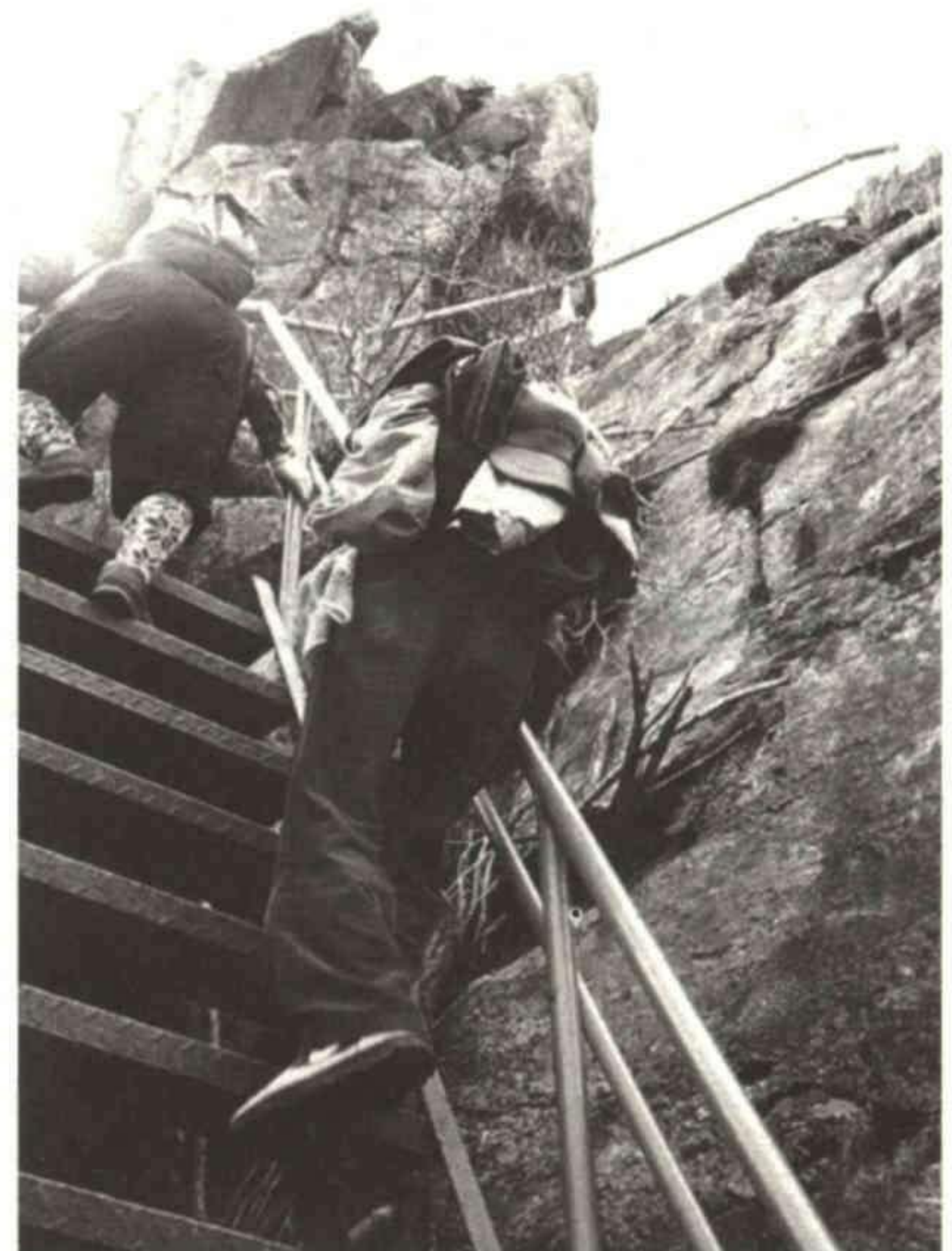
사기(寺記)에 의하면 이 절은 신라 19대 눌지왕(訥祗王) 3년(419년)에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사적(事蹟)이 분명치 않으나 임진왜란때 불에 탄 것을 지리산에서 수도하던 각성대사(覺性大師)와 벽암(碧巖)의 제자 정현대사(正玄大師)가 꿈에 본 신승의 계시에 따라 재건하였는데 그때가 인조(仁祖) 22년(1644년)이었다. 그 후 민정·의현·상기·상종 등이 주석으로 있으면서 절이 크게되었다는 것이다. 대웅전 뒤쪽으로 응진각 옆으로는 높이가 약2m정도인 부도가 있었는데 고색이 짙어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아니하나 벽암선사의 부도같이 보였다. 그 외에 담안에는 부도가 6기정도 있었고, 담 밖에도 2기나 더 있었다.

벽암(1575~1660년)은 속세의 성이 김(金)씨로 보은에서 태어났다. 10세에 화산(華山)에서 설묵(雪默) 스님 밑에서 중이 되어 속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가야산 등을 돌아다니며 수행과 학덕을 쌓고 후에 봉은사(奉恩寺)에서 판선교도총섭(判禪교都總攝)이전 당대의 거승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을 쌓을 때는 팔도총섭으로서 전국의 승려를 동원시켜 역사(力事)를 도왔으며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를 중건하는 등 큰일을 많이 하였으며, 화엄사에서 입적하니 그 나이가 85세였고, 수도생활도 무려 75년이 된 셈이다. 이 내용은 절 뒤에 있는 사적비에서 기록한 것으로 높이가 5m나 되는 이 비석은 지방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절은 현재 비구니수도처가 되어 있고, 절의 넓이만도 천왕문에서부터 폭 90m, 길이 180m의 직사각형으로 매우 넓으며, 경내가 안정감이 있고, 청정해 보여 경건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었다.

□ 아기자기한 등산길

능가사에서 1봉까지 능선길은 계속하여 올라가는 경사길이였다. 가파른 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 능가사로부터 1시간쯤은 되었을 때 넓죽한 마당바위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잠시 쉬고 또 30분쯤 올랐다.

드디어 1봉이었다. 바위로만 이루어진 봉우리였다. 그곳에서 8봉까지가 모두 바위봉이었다. 오르락내리락 아기자기한 등반 길이었으나 난소(難所)가 많았다. 쇠로프와 쇠다리는 팔과 다릿심을 동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야말로 등반이었다. 영어로 클라이밍이 맞는 말 같았다. 팔다리의 힘뿐 아니라 머리까지 써야하는 아슬아슬한 암벽이 많았다. 어느 암벽은 균열된 부분이나 약간의 돌출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을 잡고 발판 삼아 올라야했다. 손톱으로 암벽에 매달리고 그 균열 속에 발을 끼워 넣어 올라가야만 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호신의 용기와 극기의 투쟁으로 한봉한



“여기저기에 난소가 많아 등반은 힘이들고”

봉 올라섰을 때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쾌감이 왔다.

절벽을 타고 매달려야하는 난소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져 엉금엉금 기어올랐다. 그러다가 흑간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수십길 낭떠러지기가 차갑고 험악한 위협으로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내리 뻗어 있었다. 자칫 한번 실수를 하면 그 밑 수십길 낭떠러지기로 이 작은 육신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서진 가냘픈 몸뚱이는 차가운 냉기로 얼어붙어 수억의 세월 속에 굳어버린 화석처럼 굳어 있을 것이다. 그 엄포의 두려움에 밀리듯 한발한발 기어올라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그 순간 정상을 정복하였다는 희열이 온 몸을 죄어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 정상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고흥반도는 들쭉날쭉한 해변과 해송들이 들어선 고즈넉한 백사장들이 풍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가로세로 꼬불꼬불한 육상의 교통망 보다 쪽빛바다의 융단에 박힌 보석처럼 늘어선 섬사이로 난 뱃길이 더 발달된 것 같았다. 거금도와 마주보고 있는 소록도는 오늘도 ‘이청춘’ 소설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 소제처럼 80여년이 넘는 황금편백과 실편백이 히말라야시다등과 어울려 희귀한 나무들의 별천지를 이루고 있는 듯 했다. 사시사철 새소리가 천지에 가득차 정상인 이곳까지 올라오는 듯 했다.

겨울이면 새빨간 진동백과 분홍겹동백이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고 이른봄 실매화꽃 다음에 진달래와 연산홍이 섬마을을 장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록도는 한 서린 이면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왜정시대 환자들을 강제 동원시켜 ‘천국가꾸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혹독한 노동을 시킨 기억이다. 썩어 들어가는 손으로 땅을 파고 벽돌을 만들게 하여 섬 일주도로까지 만들 그때의 소록도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으리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이곳 사람들이 나무토막을 끌어안고 바다에 뛰어 들어 섬을 탈출하였다는 소문은 당사자들보다도 듣는 이들을 더 울려 놓았었다. 그 소록도의 아픈곳을 치료하기 위하여 작은 위로라도 주고자 ‘한하운(1920-1975년)’ 시인의 ‘보리피리’ 시는 지금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천사들이 안개꽃을 다듬어 놓고 읊어대고 있을 것이다.

다시 정남쪽을 바라보니 우리나라 제일의 무공해역으로 이름난 나포도가 천혜로운 어항과 3백년은 됴직한 곰솔밭풍경으로 둘러싸인 해변이 어느 이국의 정서처럼 바라보이고 있었다. 외나포도, 내나포도, 이름조차 안팎을 이야기하듯 외나포도는 외나포도항이 그 밖갯쪽에서 천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양로와 쑥섬에 둘러 싸여 점찍은 듯 아름답게 바라보이고 있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나포도에는 해수욕장만도 세군데나 되었다. 몇 백년은 되어 보이는 해송 3여주가 일광욕과 해수욕을 번갈아 할 수 있게 하여 상큼하면서도 운치가 있어 이제 그 주위에는 통나무 별장들이 들어서고 천혜의 자연과 문화의 혜택이 혼합하여 별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를 여객선과 어선들이 통통대며 활력을 다하여 질주를 하고 그 주변의 어시장에는 오늘도 갓 잡은 바닷고기들을 회쳐먹으며 그렇게 고흥반도는 하루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밀려오는 바닷바람을 맞아 가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지

이 글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한지(이승철지음, 현암사)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우리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한지의 태동기이다.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종지와 제지술이 전래되었고, 상당 기간 중국 종지를 모방하여 제작하다가 이 시기 이후 독창적인 한지를 생산하였다. 삼국시대 고분은 토분 구조상 식물질의 보존이 어려웠으므로, 제지 기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나 고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고구려나 백제 고분에 남아 있는 것도 회칠한 면이나 벽화뿐이다. 명주로 된 책[絹本]이나 종지로 만든 책이 있었기에 서책이 발달했던 것은 명백하지만, 아쉽게도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종지와 제지술이 2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전해진 사실을 생각할 때 북방은 육로로 남방은 해상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제지술이 전해졌을 것이다. 함경도 지방 이북은 추워서 닻을 재배하기는 어렵지만 마섬유[麻布]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남쪽 지역은 기후가 닻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곳이며, 원료 조달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품질도 좋았을 것이다. 고구려는 낙랑에서 주로 마(麻)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백제는 ‘닥(楮)’ 원료를 사용하는 제지법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전수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당시 중국 남부 지방인 교주(交州)에서도 닻나무를 이용하여 종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종지의 수요 계층이 수도와 인근 귀족층이었을 것이므로 고구려나 백제, 신라 모두 제지의 중심지는 수도였을 것이다. 현재 고구려나 백제의 종지와 그 제지법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의 문헌에서 신라의 수도 경주를 의미하는 계림 종지의 우수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종지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일본에 제지법을 전했으므로 7~8세기경을 우리나라 제지술이 일반화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승려 담장이 일본에 종이를 전한 시기를 고려할 때 이미 고대 우리나라에는 제지술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앞서 언급한 북한에서 발견되었던 고구려 종이 『묘법연화경』과 『법화경』은 표면이 깨끗하고 표백 상태도 매우 좋다. 따라서 대단히 발전한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정성 들여 만든 종이임을 알 수 있다

● 고구려

고구려(668년)는 끊임없이 중국과 접촉하였다. 특히 채륜이 제지술을 발명한 고국천왕 19년(197년)에 많은 중국인이 난리를 피해 망명했는데, 이때 종이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명도전(明刀錢)이 중국 망명자의 영향이라고 볼 때 당시 종이가 된 책자도 들어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는 국초부터 글자를 쓰기 시작했으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역사책 『유기(留記)』를 100권 썼는데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오권(新集五券)』을 편찬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가 종이가 아닌 대나무로 만든 죽간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일본서기』에는 “담장이 영양왕의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 일본에서 쓰지 않던 제지법과 제묵법, 채화법, 맷돌의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고구려 종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시기는 610년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구려 승려 담장이 일본에 종이를 전한 시기를 고려할 때 이미 고대 우리나라에는 제지술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앞서 언급한 북한에서 발견되었던 고구려 종이 『묘법연화경』과 『법화경』은 표면이 깨끗하고 표백 상태도 매우 좋다. 따라서 대단히 발전한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정성 들여 만든 종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에 종이를 전했다는 7세기 초 전후까지, 다시 말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종이 제조법은 중국의 제지법과 같이 맷돌로 원료를 갈아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백제

우리나라를 통해 대륙의 문물이 일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삼국 중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나라가 백제이다. 백제를 통해 대륙과 우리나라의 문물이 일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흠명천황(欽命天皇) 13년 10월 초에 백제성왕(聖王)이 석가불 금동상과 경론 등 불교를, 285년에 백제의 왕인(王仁)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일본에 전했다. 이때는 채륜이 제지법을 발명한 후 180년이 경과한 뒤로 백제 고이왕(古爾王) 52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직 제지술이 도입되지 않고 종으로 된 책만이 수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 제지법이 백제로 전해진 것은 고이왕 13년(246년)경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위(魏)의 유주자사 관구검(田丘儉)이 낙랑태수 유무(劉茂), 상방태수 왕준(王遵)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했는데, 고이왕은 이때를 틈타 진충장군을 보내 낙랑 변경에 사는 백성을 잡아왔고 그 백성에게 문화를 전승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105년 종이 제작이 이루어진 이래 황제가 이를 권장했으므로 한(漢)이 군현(郡縣)인 낙랑에서도 종이 사용이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낙랑과 접촉하게 된 백제에 종이가 전래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라

668년에 신라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고 당(唐)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으므로 제지술도 꽤 발달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책이나 서화 등 유물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문헌을 통해 신라지(新羅紙)의 예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조위(曹偉)가 저술한 『매계집(梅溪集)』 「잡저(雜著)」의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卷後)」를 보면 “성종 21년에 승려 학조(學祖)가 해인사 비로전(毗盧殿)을 고칠 당시에 전권(全卷) 43매를 대들보 사이에서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신라시대 고문서가 전해 내려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언급된 그 고문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불패조(元曉佛牌條)」에도 종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648년)의 종이연(紙鳶)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문화 수준이 제일 낮았으나 많은 노력을 들여 통일 시대의 주역답게 찬란한 불교 문화 유물과 대표급 종이 유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일본에서 정창원(正倉院)의 보물 중 한 상자를 뜯어 수선할 때 그 상자 안을 발랐던 종이에서 신라의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속을 발라 겉을 입혀 버려 현재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내 소중한 책상



고광철 수필가·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나에게는 10년 전쯤부터 늘 가까이 하는 오동나무를 재료로 하여 들어 조그만 앓은뱅이 책상이 하나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 주변 가까운 곳에 산행할 때 배낭 위에 매달아 메고 다니기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가볍고 견고하여 별 불편함이 없다. 다만 책상을 매달고 산행하는 내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이상스럽게 보여지겠지만 나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가끔씩 메고 다니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한다.

산 정상이거나 중턱이거나 할 것 없이 내가 한 나절 지낼 곳을 찾으면 배낭 속에서 모기장을 꺼내 치고 바닥에 비닐깔판을 펴고 그 책상다리를 펴놓으면 아주 좋은 책상이 된다. 숲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라면을 끓여 올리면 밥상이 되는 것이요, 소주라도 한잔 할 때쯤에는 어느 덧 술상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사용할 때마다 오동나무 책상과 나는 한 몸이 되곤 한다.

하절기에는 숲 속 어디에도 그냥 앓아 있거나 누워있기에 불편한 것이, 한 낮의 숲은 수시로 모기와 파리 또는 벌레들의 방문이나 습격이 있기에 모기장을 쳐 놓으면 그런 날 것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리면 그대로 모기장 위에 여분의 비닐 한 장을 덮으면 그런 대로 불편 없이 숲 속의 정취를 느끼면서 한 낮을 보낼 수 있다.

‘썩-아’하면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그렇게 투명한 비닐 모기장 속에서 바라보다 뱃속이 출출하

면 앓은 자리에서 휴대용 버너에 냄비를 얹어 라면이라도 끓여서 자작으로 마시는 소주 한잔에 세상살이 어려움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진한 초록빛으로 살아나는 숲과 시원하게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한 병쯤 비웠을 때는 얼큰하게 오르는 술기운에 스스로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 두어시간쯤 낮잠에 빠져든다. 으스스한 한기에 눈을 뜨면 빗줄기도 멎어 있고 비온 뒤 갠 하늘이 숲 위로 고개를 내밀고 설핏 날이 저물어 감을 알 수 있다.

빗물에 젖은 비닐을 털어서 접고 모기장을 말아서 배낭에 넣고 나면 땡그라니 놓인 책상다리를 접어 배낭 끈에 매달고 서서히 하산을 시작한다. 그렇게 오동나무 책상과 나는 한 주일의 일과를 마감하는 것이다.

언제나 거부하지 않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맞아주는 네다리의 앓은뱅이 책상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책상에서 밥상으로 그리고 술상으로 쓰여도 그럴 때마다 불평 없이 앓아 있는 오동나무 책상은 언제나 나의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은 모처럼 걸레를 빨아 책상을 구석구석 닦아 줘야 하리라. 그것이 내가 책상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베품 일 것이다. 비록 모양이 불품이 없을 지라도 언제나 투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는 책상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저녁이면 책을 읽고 술을 마시고 풀숲의 풀벌레 소리에 취하여 잠든다. 어쩌면 책상과 나는 전생부터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 같다.◇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스물 한가지 ④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구자건 지음, 현암사)”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글을 통해 환경상식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어야 하는 진짜 이유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열 사람 중에서 예닐곱 사람은 건강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육식을 많이 할 경우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는 건강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는 동물성 지방의 소비가 심장 질환 및 암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어야 하는 진짜 이유 즉, 육식 중심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건강 때문이다.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크다. 목초지 조성을 위한 삼림 훼손은 그 대표적인 것이고 축산 폐수 또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혹자는 육식 중심의 식단이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국한된 얘기 아니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3억 마리의 소들이 있다. 몸무게로 따지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나간다. 놀라운 것은 소를 비롯한 가축들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 치운다는 사실이다. 삼림을 벌채해 목초지나 경작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나 곡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한 예로 미국인들이 육류 섭취량을 단 10 퍼센트만 줄여서 가축들이 먹는 곡물과 콩을 절약하더라도 6,0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450그램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약 7킬로그램의 곡물과 콩, 그리고 1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른바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1,350킬로그램의 콩과 옥수수를 가지고 스물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반면, 콩과 옥수수를 소에게 먹여 고기와 우유를 얻을 경우 겨우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채식을 주로 하는 아시

“쇠고기와 같은 육식 중심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미각에 대해 너무 간섭한다고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미국의 저명한 환경 운동 이론가인 제레미 리프킨의 글을 읽어본다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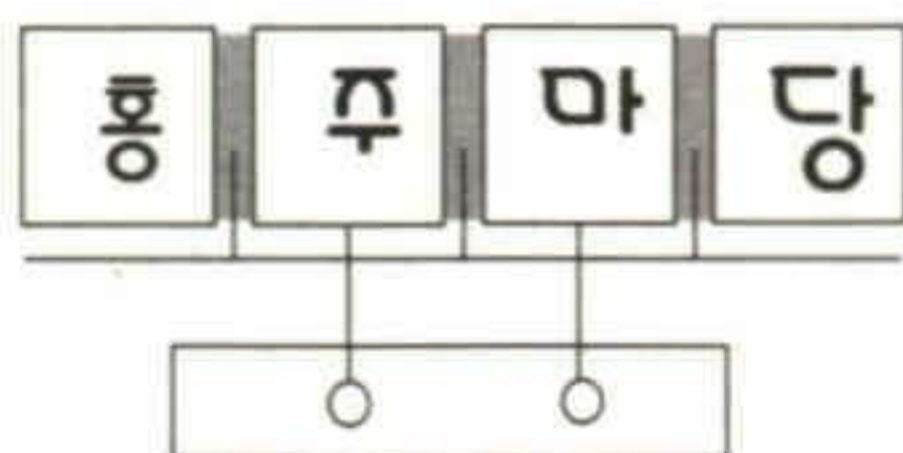
아 농업 국가들이 육식을 주로 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식량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량 수급의 비효율성, 그리고 가축 사육을 위해 벌채되는 엄청난 면적의 삼림, 이 모든 것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경우 가축 사육을 위해 4억 4,000만 정보의 삼림이 벌채되었다고 한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명 사랑에 있다.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마리 정도의 소들이 도살되고 있다. 이 소들은 제초제로 절은 곡물을 먹고 각종 성장 촉진 호르몬을 맞으며 ‘사육’된 생명체들이다.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이 야생 생물이 아니라고 해서 생명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줄이자는 말이다. 환경문제의 개선 효과도 있고 굶주리고 있는 지구 저편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원조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겠는가.

쇠고기와 같은 육식 중심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미각에 대해 너무 간섭한다고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미국의 저명한 환경 운동 이론가인 제레미 리프킨의 글을 읽어본다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갈 것이다.

소들은 일렬로 도살장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공기총을 맞고 소들은 기절한다. 동물이 주저앉을 때 도살장 노동자가 재빨리 뒷다리의 발굽에 쇠사슬 하나를 건다. 그리고 동물은 기계적으로 마루에서 들어올려지고, 몸이 뒤집힌 채 걸려 있게 된다. 피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길다란 칼을 가지고 황소의 목을 베는데, 칼날을 후두 속으로 깊이 1, 2초 동안 들이밀었다가 재빨리 칼을 거두면서 그 과정에 경동맥과 경정맥을 절단한다. 피가 용솟음치듯 터져 나와 노동자들과 장비가 피칠갑이 된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진공 포장된 이 쇠고기 조각들은 슈퍼마켓으로 수송되고, 거기서 환하게 밝은 불이 켜진, 방부 처리가 된 판매대에 전시되는 것이다.



새 싹

이유리 용봉초등학교 3학년



봄만 되면 꿈틀꿈틀
 돌아나는 새싹
 새싹이 자라서 자라서
 무엇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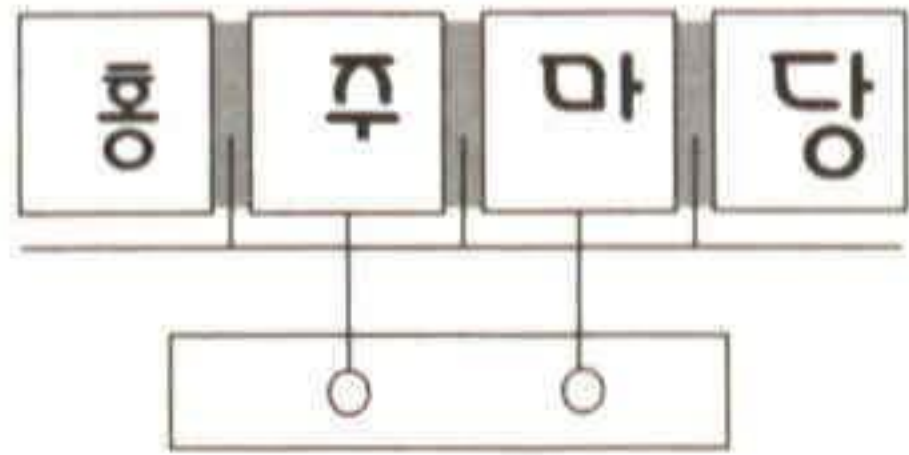
꿈틀꿈틀 자라서
 개나리 되지
 꿈틀꿈틀 자라서
 수선화 되지



어른들은 우리보고 새싹이래요
 우리는 자라서 자라서
 무엇이 될까

건강하게 자라서 나라의 기둥되지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꿈 이루지





자작나무 숲 오솔길을 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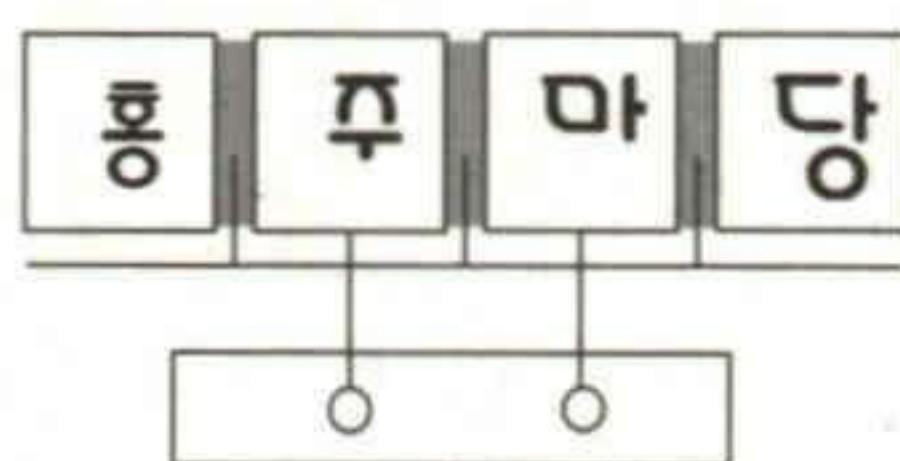
- 톨스토이를 위한 기도 -

김정명 광천고등학교 교사



위대한 톨스토이가 녹색의 숲 속에
아름다운 꿈처럼 잠들고 있네!
온화한 식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이 있었네!
자신의 빛나는 정신과 연약한 육체로
사랑의 눈을 들어 빈민을 구제하였네!
유희(遊戱)하는 사유(思惟)의 세계는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반짝였네!
때로는 부인이 투덜대기도 했지만,
멀리 떠나면서 아랑곳하지 않았었네!
무한한 사색은 문학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네!
죽음의 빙벽을 향해 고고히 떠도는
그의 영혼은 가시 면류관이었네!
어느 날, 우연히 길 잃은 나그네가
하얀 자작나무 숲 오솔길을 걸으면
귀여운 새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네!





2004년 새해맞이

白月山 告天祭 거행



전하수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금년 새해 첫날 이른 새벽에 홍성의 영산 백월산 정상에서 고천제를 지냈다. 홍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고 군내 기관단체장과 공직자, 군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새해 군 단위 첫 행사였다.

고천제란 우리 조상들이 단군왕검 개국 이래 고대 신앙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며 이 사상은 인간과 천지신명을 일치시켜 무한의 구원을 얻고자하는 신앙의 발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고천제 유적은 전국의 명산에 있으며, 그중 “白”자 지명의 산 정상에서 지냈다고 본다. 즉 백두산, 태백산, 소백산, 백운대, 백악산, 백월산, 월산, 백산 등 박달(百山)이 그 범주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백산(白山)을 신성한 제단으로 삼은 이유는 지상에서 아주 높은 곳, 즉 하늘과 가까운 산이기 때문이다.

백월산은 이곳 내포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홍성의 진산이며 이름 또한 백월산, 월산, 일월산 등의 신령스런 명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곳에서 예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산 정상에 여러 바위에는 제단과 제기를 놓은 듯한 자국이며, 한문자 및 부호 등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고천제는 조선조 말까지 이어져 온 듯 하나 일제강점시 중단이 되어왔을 것이고, 광복 후에는 홍주청란공신이신 홍가신 목사를 비롯하여 당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다섯 분의 공신의 위패를 모신 “홍양청란사”의 사당에서 홍성읍 오관리 성내 등의 뜻있는 분들이 주동이 되어 정초에 택일하여 제향을 올려왔으며, 지금도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2004년 새해 새벽 고천제와 봉화 올리기 행사를 홍성군수와 군 단위 기관단체장이 제주가 되어 엄수하였고, 금년은 5년째로 거행하게 되었다. 금년 제향에도 초헌관에 채현병 홍성군수, 아헌관에 이용학 홍성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김병남 농협중앙회 홍성군 지부장, 집례는 전하수 회장, 좌우집사에 황성창 부회장, 복익채 회원, 알자 박복선 회원, 봉독 배인희, 민건철 회원, 대축은 이해현 총무가 맡았고, 이종건 충남도의회 의원이 만세 삼

창을 선창하고 동쪽의 봉수산 위로 떠오르는
햇님을 바라보며 우리 지역의 안녕과 발전,
나라의 융성, 모든 군민의 건강과 행운을 마
음속으로 빌며 행사를 끝냈다.

이번 고천제를 올리기 위하여 주관한 홍주
향토문화연구회에서는 전 회원이 준비에 만전
을 기했다. 우선 제물과 집기 준비를 위하여
5일 큰 시장에서 간결한 제수를 정성껏 준비
하였고, 집례를 담당한 사람은 전날 홍성온천
에서 목욕을 하고 복장도 정갈하게 갈아입고
헌관 세분에게도 사전 연락하여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어둠 속의 겨울행사라 통행길이 걱정
이 되어 전날 늦게까지 군청의 수로원이 모두
동원하여 비탈진 곳에 모래를 깔고 만반의 준
비를 마쳤다.

금년에는 날씨가 포근하여 제례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덜었다고 생각이 되며,
금년에도 준비한 떡과 생강차가 부족 되어
아쉬움이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되나 그때 가보아야 알 일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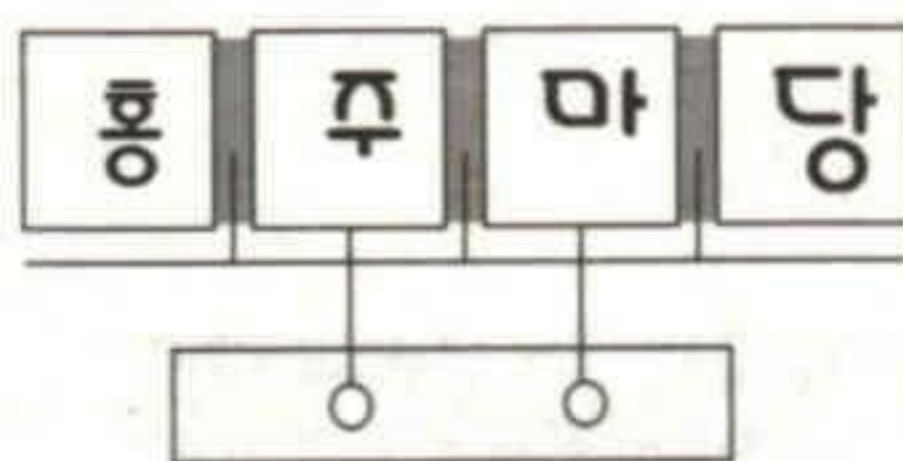
새해 첫날에 만나는 기관단체장님과 모든
군민이 화기애애하고 웃는 얼굴에 한해의 덕
담을 나누며, 이른 새벽의 피곤도 모두 잊은
듯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안고 무사히 제례를
마치며 하산하였다. 참석한 군민 중 관심이 높
으신 분들의 진언이 있었으니, 제례를 올리는
제단을 석재를 이용 고정된 장소를 만들어야 좋
겠다는 고견이 있었고, 명산의 정상까지 차량이
통행함은 산을 훼손하게되니, 산 중턱의 적의한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산
정상에 차량이 통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에 끝을 맺으며 적게
되었다.



백월산 고천제 모습들



삼화/이엽



보람으로 시작하는 새해



최규원 구항파출소 정장

2003년 1월 1일. 인사발령 관계로 전날 과음을 하였음에도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계속 잠을 청하여도 다시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더욱 말뚱말뚱 하였다. 술을 마신 날은 가족들에게 미안하여 구석에서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진 나는 방문을 열고 나오며 아이들을 불러 깨웠다.

나의 목소리에 벌써 일어나 계시던 어머니와 그제서 눈을 뜬 집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우리식구 모두 해돋이 보러 월산에 가자” 하는 소리에 나이 드신 어머니는 “자식 덕에 해돋이 구경을 다 간다”라며 좋아하셨고, 잠이 덜 깬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따라나섰다.

차를 타고 월산을 오르는 중간 중간에 주차해놓은 많은 차량들을 볼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우리식구들 보다 앞서 산을 오른 것이었다. 차량이 오를 수 있도록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걸어 오르고 있었다. 우리 식구도 걸어서 가고 싶었지만 뺑소니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와 디스크로 허리를 몹시 아파하는 집사람 때문에 우리가족은 계속 차량을 이용하여 월산 정상에 향하였다. 중간에 내려오는 차량 2대를 피하기 위하여 30여미터 가량 가파른 길을 뒷걸음치기도 하면서 나는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정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 차량을 주차할 수가 있었다. 더 오르고 싶어도 내려오는 차량들이 많고 운전자들이 정상부근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으며 차량을 돌릴 공간마저도 없다는 말에 우리식구는 차에서 내려 정상봉화대까지 약 400미터 남짓을 걸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추위에 두터운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도 신이 나서 가파른 길을 잘도 걸어 올라갔으나 어머니와 집사람은 힘에 겨운 듯 점점 뒤쳐지고 있었다. 나는 뒤쳐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끌어 우리는 봉화대 밑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다. 그곳에서 봉화대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는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오르시기를 사양하였으나, 여기까지 오셨으니 부축하여 오르기를 재차 권유하자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고 자식의 팔에 몸을 맡기신 채로 봉화대 정상을 향하여 발을 옮기셨다.

정상에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작 정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였으나 어둠이 가시지 않아 하늘은 온통 먹빛 구름으로 덮여 기대에 찼던 해돋이를 구경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건너편 봉우리 꼭 집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라는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계속하여 “사람이 떨어졌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눈길을 내려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어찌지를 못하다가 해돋이 구경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부축한 채 주차장으로 내려와 가족들을 그곳에 남겨놓은 채로 소리가 나던 곳으로 달려 올라갔다.

소리가 난 곳은 월산 정상 바위 밑에 위치한 곳을 하는 집 위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었다. 바위 위에 오른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바위 위에서 뒤로 넘어져 떨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피를 흘리거나 하는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연세가 족히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는 얼굴과 팔이 약간 굵힌 상태였다. 나와 또 다른 젊은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걸어 나오셨는데 떨어질 때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다. 하산하는 사람들을 찾았으나 해돋이를 보러 올라온 사람들은 걱정만 하며 바라볼 뿐 선뜻 나서지를 않았다.

나는 같이 부축한 사람에게 “내 차량이 저 쪽 밑에 주차되어 있으니 내가 모시고 내려가겠다.”고 하자, “최경장님이 수고 좀 하세요.”라며 할아버지를 내게 맡기며 나를 아는 체 하였다.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묻자, “오관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가족들에게 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소리쳐 말하였다.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같이 부축을 하던 사람이 식구들은 자기 차가 중간쯤에 있는데, 하산하며 자기가 모시고 갈 테니 할아버지만 먼저 모시고 내려가고 식구들은 해돋이를 구경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과 집사람이 불편하여 그곳까지 건지 못

하는 점을 생각하여 사양하고 식구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를 앞좌석에 모시고 식구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산 아래로 차량을 옮기면서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나이를 여쭙봐도 말을 제대로 못하였다. 갑자기 머리에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으시며 “이게 누구모자냐?”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쓰고 계시던 것이다.”라고 하자, “아니다. 내 모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등 내 생각에 혹시나 머리를 다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게 하였다.

비상 감박이를 켜 차량이 산길을 내려가는 중에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다. 막바지 해돋이를 구경하려는 차량들이 수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산길을 마주 교행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 내려가지도 않아서 오르는 차와 마주치게되어 비상 감박이를 켜고서도 내려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나는 해돋이를 구경하려고 가볍게 집을 나서다 보니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마주선 차량의 운전사에게 환자를 모시고 급하게 하산하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전화를 한번 사용하자고 양해를 받았다. 홍성경찰서 오관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근무자에게 급히 환자를 후송하고 있으니 월산 입구를 통제해 줄 것과 119구급차량을 산밑에 대기하여 달라고 전화를 한 다음, 마주선 차량들이 밑으로 후진하며 좁은 길을 비켜주어 조금씩 하산을 하였다. 하지만 이미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여 산을 올라오고 있는 처지라 크랙션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 채 차량들을 헤치며 간신히 산 밑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에게 집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다. 걸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산 입구에서 조금 기다리자, 순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여 주고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케 하였다. 나도 어머니 핑계를 대며 차량을 가지고 산을 다시 올랐지만, 다음부터는 산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걸어서 오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없이 나를 쳐다보던 가족들이 뿌듯해 하였다. 나를 바라보고 “아범. 새해부터 좋은 일 했다.”, “우리 아버지 착한 일 하나 했네.” 하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식구는 아침을 먹기 위하여 시내 식당으로 향했다.

해돋이를 보려고 오는 산행이 그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분이 몹시 좋았으며, 새해 여명이 밝기도 전에 가족들 앞에서 선행을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올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보내야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며, 해돋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 가족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삼화/이업

1

새해라, 첫 아침
동녘 한울엔 붉은 햇살이 뻗쳐오르나이다
무릎꿇고 정성을 구울려 비읍는 마음 한껏 떨리웁니다

이 땅 겨레의 가슴에도
이 땅 겨레의 가슴에도
새로운 붉은 해가 돌아오르사이다
새로운 힘이 뛰고, 새로운 기쁨이 피어날
가장 경건한 아침이 열려지이다

2

해마다 첫새벽이 오면 비읍는 마음
이해라 다름이 잇사오리카마는
팔짚고 정성을 구울려 비읍는 마음 더욱 두근거리웁니다.

주먹을 놓고 맹서하오니
주먹을 놓고 맹서하오니
적은 일이웁든 큰일이웁든
하고 많은 가운데 한 가지일지라도
이 해에만은 뜻대로 일우어짐이 있어주소서

3

새해를 맞이하웁는 마음
가슴이라도 베여 정성을 다하고 싶으웁거든
어깨라도 꿰어 정성을 다하고 싶으웁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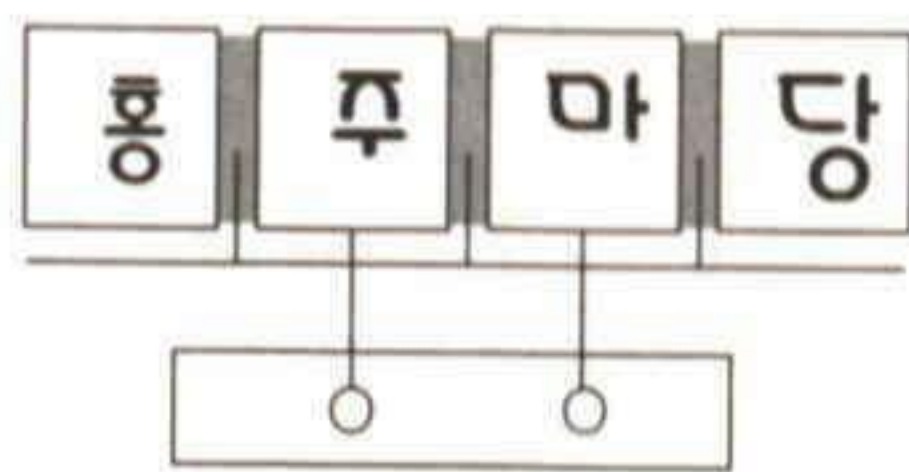
오오 새 날이여!
이 땅에 열리소서. 힘차게 열리소서.
이 땅에 빛나소서. 아름다이 빛나소서.

-계유원단(癸酉元旦)에

● <새날의 기원> 이해하기

김해강의 1933년도 동아일보 신춘 문예 당선 작품이다. 이 시는 그 제목에서 보듯 새해를 맞는 소망을 기독교의 문장으로 담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출전 : 동아일보 (1933.1.8)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

이명순 국학원 홍성지부장



“대륙을 달리던 고구려의 웅혼함과 기상을 우리는 잊어야만 하는가?”

대륙 진출의 역사인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에 의해 우리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 함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학술적인 면으로 축소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지역에서 계속 발전해온 바가 없으며, 한 지역에서 많은 왕조와 민족간의 갈등 속에 변화해 온 것을 기억하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개연성을 잃은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 1980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을 2002년부터 5년간 ‘동북 공정’이란 이름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동북공정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북 공정’이란 중국의 동북에 해당하는 변방 지역의 역사와 상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 사 등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는 향후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영토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의 난민 문제 및 통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심 위치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동북공정에 대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동북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경고하며 중국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네스코 고구려 문화재 등재

특히 고구려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2001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했던 북한 지역의 고구려문화재가 중국 측의 이의 제기로 보류가 되고, 급기야 2003년에 벌어졌던 중국의 고구려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등과 광개토대왕비, 왕릉 13기, 귀족무덤 26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63기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만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ICOMOS 회의에 앞선 네티즌들의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으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공동등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2004년 6월의 중국의 '수저우'에서 유네스코에 산하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가 열려 두 나라가 신청한 고구려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고구려 지킴이 운동

고구려 역사를 빼앗기는 것은 우리 역사 중 3000년의 역사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구려는 고조선 발해와 함께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찬란한 문화와 웅혼한 기상을 지녔던 대륙 진출의 고구려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 국학원과 우리 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는 전 국민적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142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중국대사관의 거부로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을지문덕 온라인 프로젝트로 네티즌 100만 명이 참여하여 ICOMOS와 UNESCO에 대응메일 발송으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는데 영

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2월부터는 '대륙의 역사-고구려 유물유적 순회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9일부터 '2004 고구려 문화 기획전'을 통해 고구려인의 숨결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4 고구려 문화기획대전'은 살아 숨쉬는 고구려의 숨결이 다가오는 행사가 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현재와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듯이 고구려 사는 단순히 지난 역사만의 문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핏속에 숨쉬고 있는 고구려인의 기상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4. 국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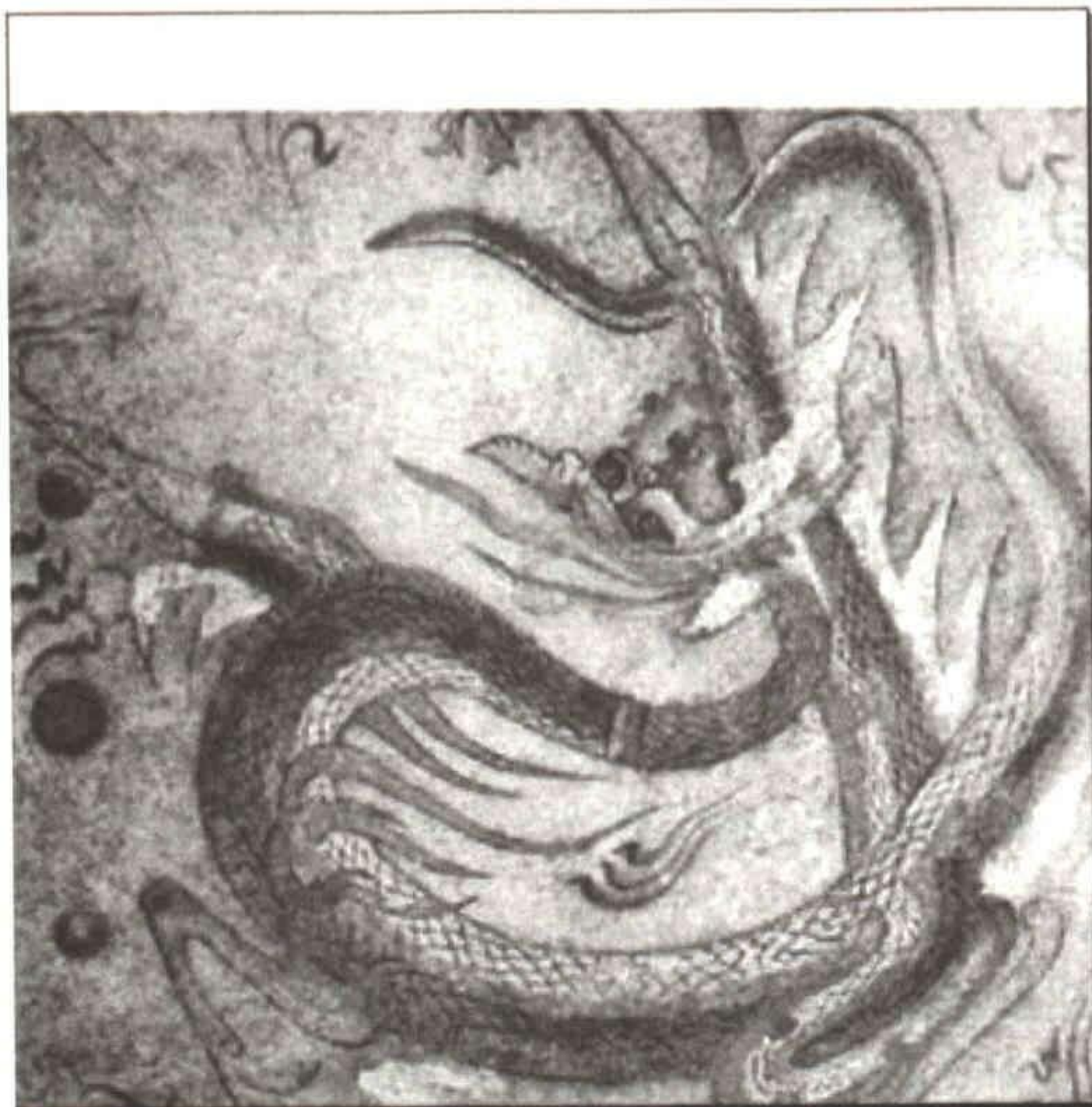
이러한 고구려 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학원은 한민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간사랑, 나라사랑, 지구사랑의 정신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교육, 연구기관입니다. 국학원은 어느 한 개인이



국학원건물

나 단체가 아닌 국학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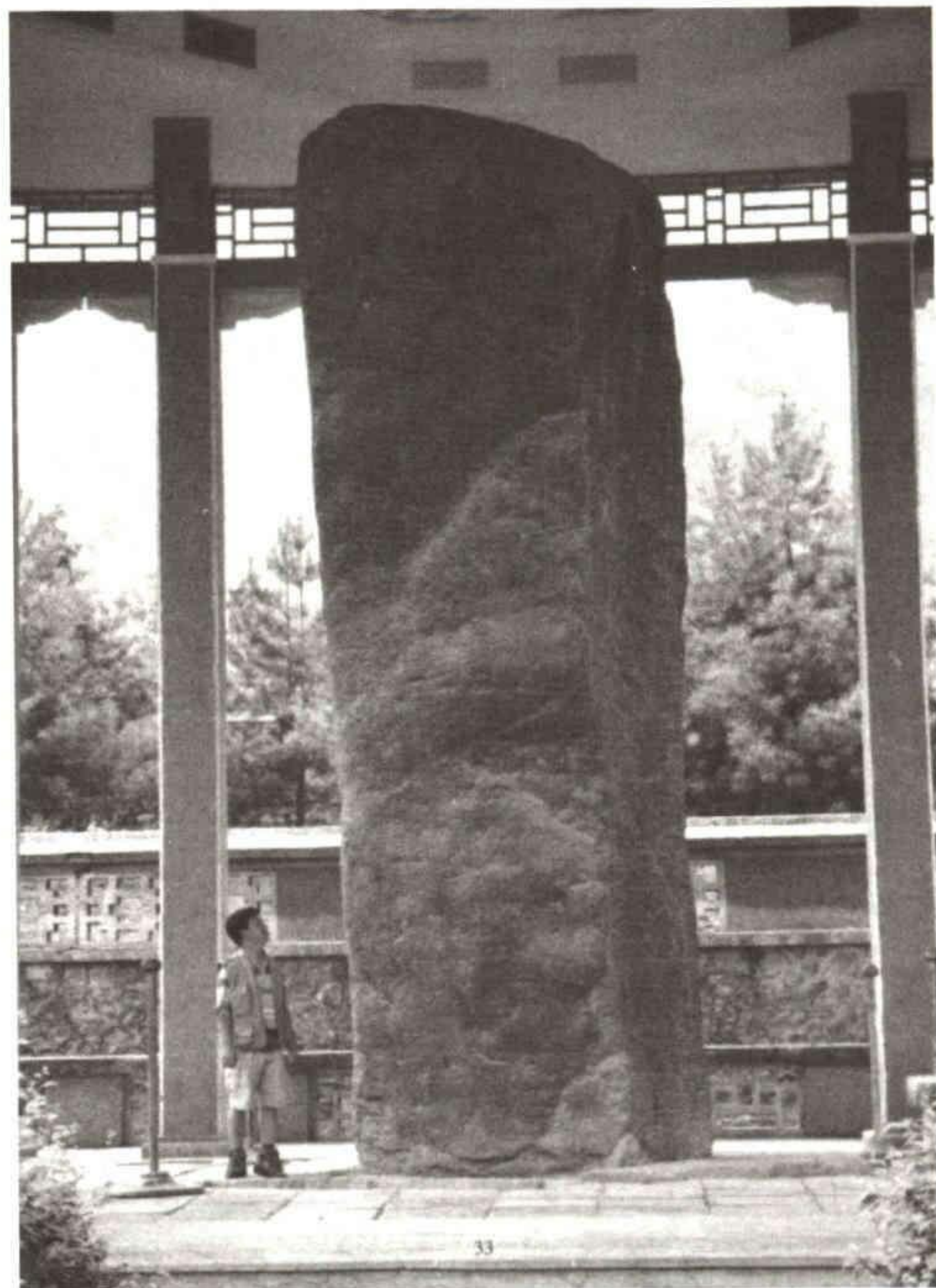
국학원은 민족의 숙원사업인 평화통일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철학을 민족고유의 선도문화, 정신문화인 '홍익철학'에서 찾고자 합니다. 홍익철학은 '개인과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조화의 철학'이며, 위기에 처한 21세기의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황룡과 '천하의 중심' 고구려

[오회훈 4호묘, 6세기]

사신도가 있는 방의 천정 중심에 그려진 황룡은 중영과 제왕을 상징한다. 광개토대왕비에 이어 5-6세기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광개토대왕비

국학원은 2천년 동안 잊고 있었던 선도문화와 정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국

학, 살아있는 국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학원 1층과 지하층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학원은 이후로도 계속 국민교육활동으로 국민강좌를 진행하고 국학교육원과 효충도 교육원을 통해 국민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학술연구활동으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며, 국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사업으로 민족역사 바로 지키기 활동과 국내 및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국학 교육 실시, 전 세계 한민족의 젊은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천절 등 각종 민족행사 및 민족 관련 이벤트 개최, 민족문화상품 콘텐츠 개발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 맺는 말

“명분이 있는 전쟁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거대국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절실한 염원을 가진 한민족이 있는 한 고구려 역사 유린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역사를 손상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관심과 고구려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스스로 키워 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내일을 열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학원 : WWW.Kookhakwon.org

주소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67-1

전화 : 041-620-6700, 팩스 : 041-620-6708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8층

전화 : 02-3453-7536, 팩스 : 02-3453-7537

두타산과 청옥산을 다녀와서

고종화 제일약국 약사

새벽잠을 설치면서 잠에서 깨어나니 예정시간보다 한참 빠르구나. 비단 나만이 아니고 옆방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니 모두가 같은 심정일까? 새벽 4시쯤 손전등에 의지하고 산 입구를 향하여 걷는다. 평탄한 길이지만 가끔 만나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음은 요즈음이 장마철임을 입증하는가 보다. 다리를 건너고 언덕을 향하여 가면서 지난번에 왔던 길인가를 다시 확인코자 하지만 벌써 10여년이 지났으니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하구나. 울창한 노송에게 나는 너무 왜소함을 느낀다. 청옥산 가는 길과 갈림길에서 두타산 쪽으로 향하니 경사가 심하다. 숨이 차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계(視界)가 점점 밝아진다.

울창한 노송들의 자태에 위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왜소함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수백 년을 지나면서 한반도의 모든 역사를 전부 알지만 그래도 침묵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 민족의 상쟁(相爭)을 슬퍼하면서 침묵함인가?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평화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음인가? “산성터에서는 삼국시대의 숨소리를 듣는다.”

두타산 산성터에 도착했을 땐 사방이 전부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왜 이런 험준한 곳에 산성을 쌓았을까?’ 불교중심 국가시



두타산의 용추폭포

절에 사찰의 권위를 만들기 위하여 쌓았을 법도 하고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대이어서 서로가 경계를 하기 위하여 쌓았을 법도 하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 민족의 비극은 그때부터 민족상쟁의 현상이 있었으리라. 그리 좋지도 않은 민족수치의 습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산(山)나그네의 발길이 다시 우울해진다. “12폭포에 와서 모든 시름 잊고 신선이 된 듯 하다.”

쉬다 걷다를 반복하면서 12폭포에 도착하니 정말로 탄성이 절로 난다. 산 중턱에서 새하얀 명주 수천필을 늘어놓은 듯 한데 그 주변의 절

벽은 수백 폭의 병풍을 둘러 있는 듯 하다. 어찌 이 깊은 산중에 이런 놀라운 경관이 만들어졌을까? 아마도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런 장관을 볼 수 있게 함일게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폭포에 씻어버리자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에서 귀를 씻듯이 우리도 지금 귀도 씻고 마음도 씻고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산행을 하자.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니 그냥 감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부지런히 걷자. 길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경사가 심해지고 완만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 양쪽 철쭉 숲을 지나면서 철쭉이 피는 계절에는 꼭 아름다운 산임을 예상한다.

바위 사이에 선 잣나무엔 그 열매(잣)가 탐스럽다. 자연의 섭리가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 두타산 정상에서 산꾼들의 합창을 듣는다. 다리에 힘이 바지고 배낭이 점점 무거워 옴을 느낄 때 우리들 일행은 정상에 닿았다. 먼저 온 산꾼들과 타지역에서 온 산꾼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끌시끌하다. 정상엔 두타산 정상의 표석이 있고 헬기장이 있어서 식사하기가 편하다. 뒤에 오는 일행들을 기다리고 모두 모여졌을 때 식사를 시작하니 그 맛이 천하일미로구나.

“백두대간의 중간에서 무엇을 생각하나”

이제부터는 백두대간을 걷는다. 청옥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 미끄러우니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점점 다리 힘이 빠진다. 지리산에서 금강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을 걸었으리라.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자. 비록 사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긴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들 형제들의 아픔이 아닌가! 잠시 쉬고서 일부는 박달령으로 갈라서고 나머지는 청옥산으로 향한다. 나름대로 자신 있는 산꾼들이라 쉴 틈도 주지 않고 단

숨에 청옥산 정상에 올라서니 중봉 가는 길과 백두대간 코스인 고적대로 갈라진다. 우리들은 고적대 쪽으로 달린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식이 있단다. 뛰고 달리고 한다. 첩첩이 산으로 둘러져 있다. 우리들 일행은 연철성령에서 잠시 쉬고 우측 능선을 타고 내리는데 경사가 심하고 길이 미끄러워 대부분 넘어지면서 옷이 흙투성이가 된다.

계곡에 닿을 무렵에 계곡 쪽에 흰눈이 쌓여있는 듯 하다. 자세히 보니 흰눈이 아니고 계곡 바닥의 대리석이 흰색이어서 흰눈으로 착각을 했구나. 그 넓은 계곡은 큰 대리석 바위가 깔여서(마모되어서) 빨래판모양의 넓은 돌 판이 되었으니 그 지난해가 수억 년이 흘렀으리라.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이런 대자연(大自然)에 비하니 또한 부끄럽구나.

“신선봉에서 용추폭포까지 산행을 음미한다.”

내려오는 길목에 옛 절터엔 대피소가 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엔 꼭 필요하겠으나 현재는 쓸쓸하기만 하다. 그 앞마당엔 잡초만이 가득하고, 옛날 융성했던 절을 상상하여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까? 신선봉에 오르니 구름이 가득 하여 먼 곳을 볼 수가 없다. 말밑엔 수십 길의 낭떠러지가 발바닥을 간지럽게 한다. 철계단을 내리고 쌍폭에 닿는다. 그 앞에 늘어선 장군바위와 병풍바위가 서 있다. 알고 보니 그 위가 신선봉이다. 쌍폭의 물 소리에 모든 잡념이 묻혀버린다. 그 위 용추폭포에 닿으니 역시 무릉계곡이 제1경(第一景)임을 말할 수 있겠구나. 친구들과 간간한 기념촬영을 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자연에 묻어버리고 과거의 많은 꿈을 꾸었으니 꿈을 깨고 현실로 가야겠다.



생활의 지혜

【상표 등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땐】

- ☞ 커피세트나 기타 주방 용품에 붙어 있는 상표나 정가표는 떼어내도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 문지르거나 더운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아세톤을 사용하면 깨끗이 지워진다.

【집안의 개미를 없애려면】

- ☞ 부엌이나 방에 아주 작은 개미가 줄줄이 기어다니는 수가 있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으며 위생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든다. 이럴 때는 개미가 기어다니는 통로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며칠 후에는 개미가 없어진다. 또 개미가 나오는 구멍을 찾아 석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닐봉지 보관함으로 티슈통 활용】

- ☞ 다 쓴 사각티슈통을 비닐봉지 보관함으로 활용해 보자. 비닐봉지를 여러 겹으로 접어 티슈통에 차곡차곡 개서 넣어두면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다.

【우리아이 민간요법】

- ☞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도 밤에 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에겐 잠자기 전에 은행을 다섯알 정도 볶아서 꾸준히 먹이면 개선이 된다. 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에게는 연근 요리를 해서 먹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름 감기 퇴치법】

- ☞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지만 요즘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여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땐 물 1리터에 오미자 10그램을 넣고 우려내 마시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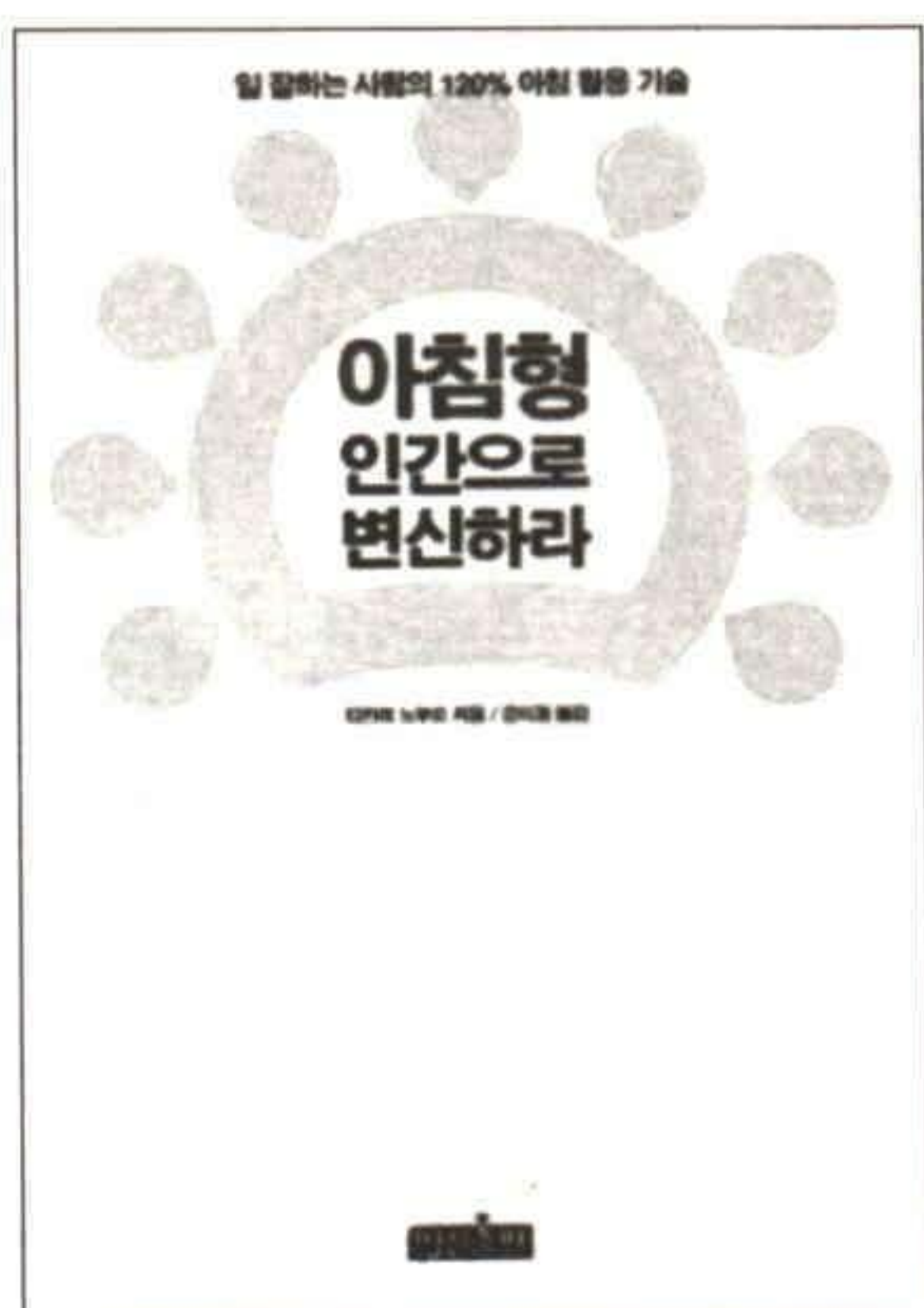
【속옷을 희게 세탁하려면】

- ☞ 누렇게 된 흰 속옷을 다시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달걀껍질을 가제에 싸서 같이 삶는다. 또 말려둔 감귤껍질을 넣고 끓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신 간 안 네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라

다카이 노부오 지음 | 은미경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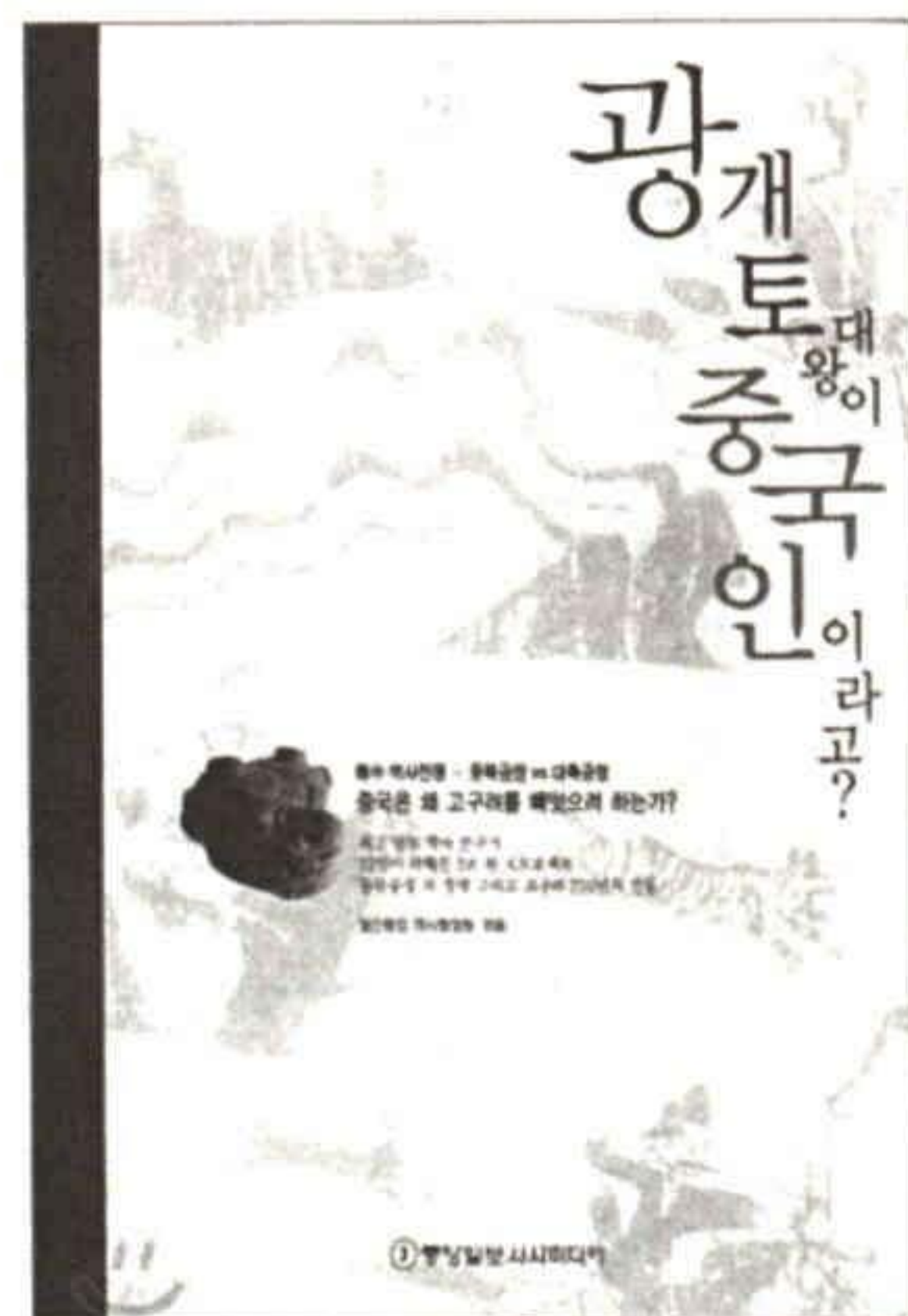


일본에서 불황기에 등장한 ‘아침형 인간’이라는 개념은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에게 자기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설득력을 얻었다. 일본열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일본 국민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불황을 헤쳐 나왔다. 현재까지 이 개념은 개인의 삶과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 노력은 이제 일본에서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무작정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상 시간부터 오전 업무 활용, 시간관리, 인간관계까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오전 업무 강화법, 처세법까지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라》는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에게 희망의 비전이 될 것이다.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길수 외 21인 지음



고구려를 놓고 한·중 양국이 벌이고 있는 역사전쟁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이르게 한다. 감정적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고 사실(事實)로서 사실(史實)을 구축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책은 중국이 진행중인 ‘동북공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논의를 객관의 장으로 끌어낸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국내 고대사 및 생활문화사 분야 전문가 22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고구려를 생활·문화·인종학적으로 분석하는 글도 실려 있다. 도표와 풍부한 사진자료가 이해를 돕는다.

‘월간중앙’ 별책부록으로 나오는 ‘역사탐험’에 게재된 원고를 중심으로 엮었다.

- 편 집 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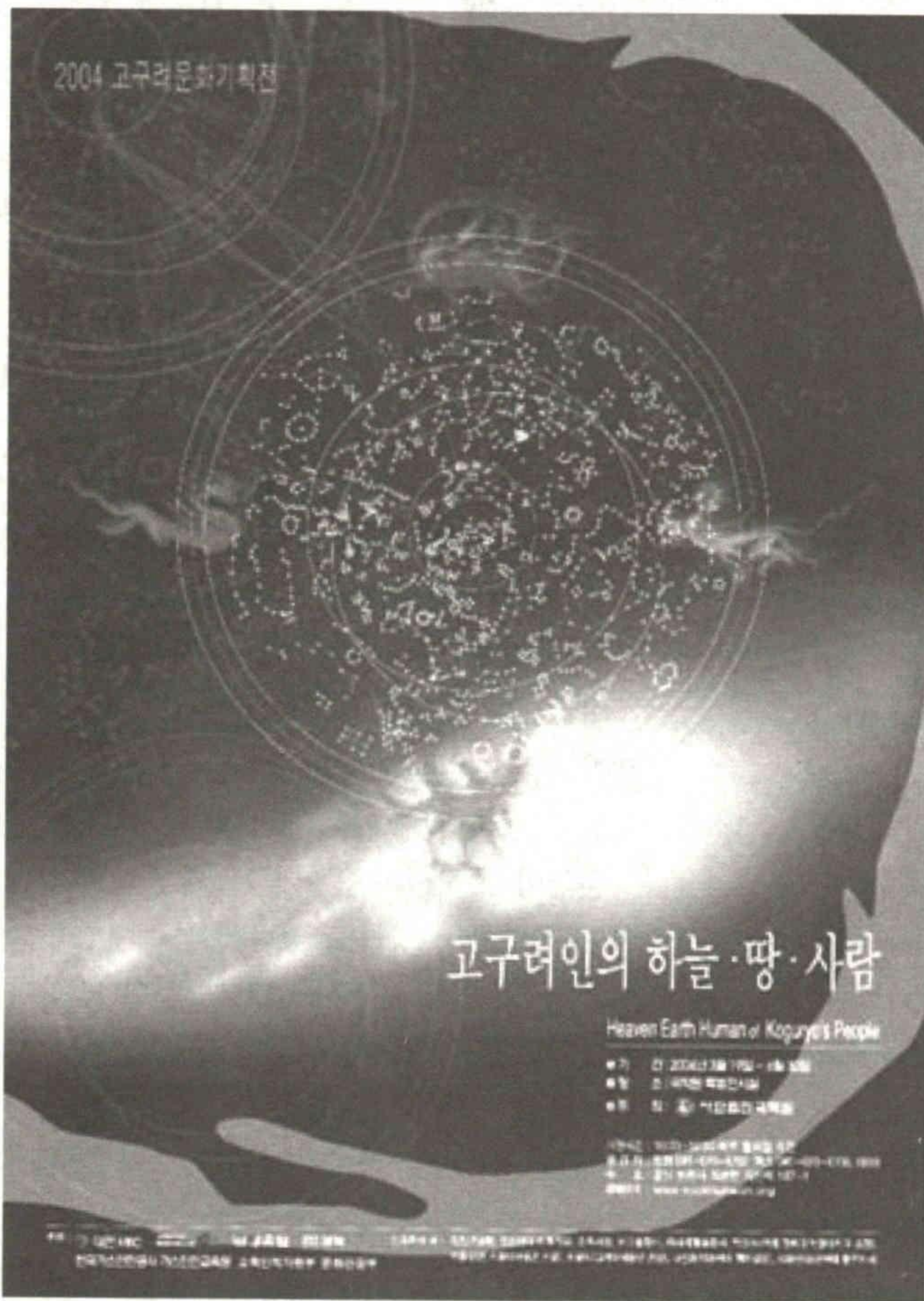
전시안내

2004 고구려문화기획전 **고구려인의 하늘 · 땅 · 사람**

○ 전시기간 : 2004년 3월 19일 ~ 6월 30일

0 장 소 : 국학원 특별전시실(천안소재)

주 최 : 사단법인국학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몽고, 티벳 심지어 베트남 역사까지 중국의 변방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고구려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004 고구려문화기획전”
은 국민들이 고구려를 체험
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자긍
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
며, 나아가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개관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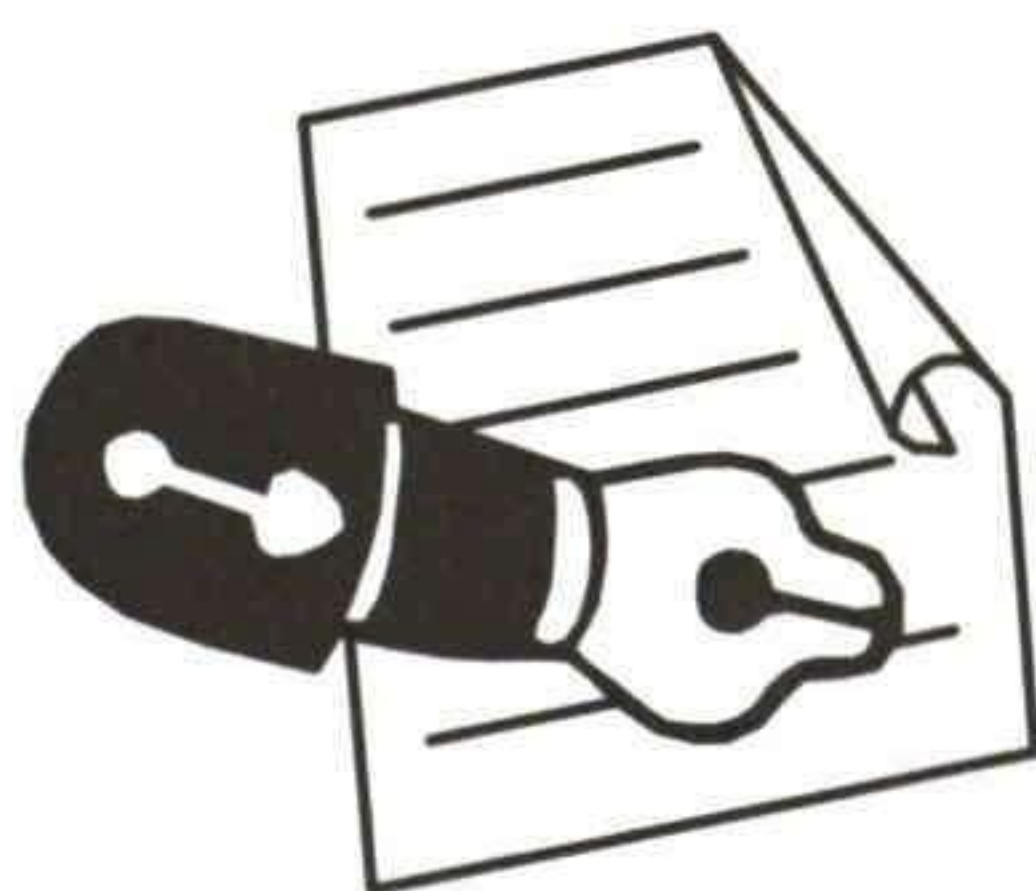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원 고 모 집

「홍성문화」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 각 사회단체, 기관 및 군민소식
- ✿ 고향에 대하여 쓰고 싶은 글
- ✿ 기타 시, 수필, 콩트
- ✿ 보내실 곳 : 우)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홍성문화원 「홍성문화」 편집실

표지사진 작가

조 철 행



· 한국사진협회 회원
· 홍성사진동우회 회원

편집후기

꽃샘추위와,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한 해 농사의 시작이 엉망이 되었다.

늘 자연은 계절에 맞게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는 미덕을 발휘하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계절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럽히고, 짓밟은 자연을 복구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가 국가의 이미지고, 경쟁력인 지금 문화인의 행동력으로 자연을 살리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표지사진 설명

▷ 표지사진 : 『엄찬고택』

엄찬은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성삼문의 외손이다. 엄찬의 고택으로 전하는 이 목조건물은 본래 문간채와 안채가 갖추어진 양반집이었으나, 지금은 문간채가 없어지고 안채만 남았다. 평면구조는 ㄱ자형이며, 서쪽으로 경사져 있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막돌 바른층쌓기로 기단을 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처마는 흘처마이며, 가구(架構) 방식은 높은 기둥 위에 주두(柱頭)를 올린 간결한 구조로서, 기둥은 내외 모두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지붕은 동쪽의 본채 지붕만 팔작지붕이고, 나머지 서·남·북쪽의 익사(翼舍)는 맞배와 우진각지붕으로 구성하였다.

홍성문화

2004. 봄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발행일 2004년 3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 : 041-632-2363)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향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서예교실, 한문교실, 닥종이인형·비즈공예교실, 노래교실, 도예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강 좌 안 내 ▶

구분 요일별	프 로 그 램	시 간	과 정	내 용	월 회 비
월	서예교실 (2층)	오 후 2시~4시	6개월과정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15,000원
화	한문교실 (1층)	오 후 2시~4시	6개월과정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 명 심 보 감 강 의	15,000원
화, 목	닥종이인형· 비즈공예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3개월과정	종 이 를 이 용 한 인 형 · 구 슬 을 이 용 한 작 품 만 들 기	20,000원
수	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 중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 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15,000원
목	도예교실	오 전 10시~12시	3개월과정	기 초 부 터 배 우 기	20,000원

■ 접 수 : 수 시 접 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632-3613, 634-9659)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 성 문 화 원 은 항 상 여 러 분 과 가 께 게 있 습 니 다 ○

고깔제비꽃

〈개화기 : 4-5월, 용도 : 관상용, 어린싹은 식용〉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 나는 다년초. 땅위줄기는 없고, 땅속줄기는 통통하며, 마디가 있음. 잎은 밑동에 2-5장이 밀생, 심장형,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양면에 짧은 털이 있음.

꽃은 대개 붉은색, 홍자색, 잎 사이에서 나온 가는 꽃줄기 끝에 붙고, 좌우 상칭. 측판 안쪽에 다소 털이 있고, 거는 짧으며, 난형, 꽃받침은 5장, 긴 타원형, 끝이 뭉뚝함. 열매는 타원형, 삭과, 세모 짐. 염색체 수 $2n=24$.

● 잎이 활짝 피기 전의 모습이 고깔 같아서 고깔제비꽃이라고 함.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



HONGSEONG CULTURAL CENTER

홍성문화원